

예수바라기

Since 2009
yesubaraki

영혼의 고품을 채우는 신앙 월간지



BUS
STOP

B.M.W.의 아프리카 선교 이야기

나의 어린 시절과 아프리카의 꿈

2024

11



장원의 님 / 시인, 수필가 bluebird6751@naver.com
전) SMI 국제학교 어학원 원장
[신정문학] 시등단 [한국국보문학] 수필등단
문학의 봄, 신정문학, 시문회담 정회원
SNS에 #시쓰는파랑새로 활동

고백

그대가 내 곁에서
꽃이었을 때는
꽃의 아름다움을 잘 몰랐습니다

그대가 내 곁에서
사랑이었을 때는
사랑의 황홀함을 잘 몰랐습니다

그대가 꿈꾸는
세상을 알지 못해서
그대가 펼쳐놓은
하늘을 헤아리지 못해서

그대의 날들을
다 채우시고 가시는 날에도
그 가녀린 꽃잎들로 끝내
나의 누추한 그림자를 덮으셨습니다

눈 감으면 보이는 그대
그리운 입이시여



월간 『예수바라기』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한반도와 세계에 흩어져 사는 '재림기다림이'들을 위해 기도와 땅을 모아 펴내는 월간지입니다. 본지는 예수님 품성을 닮아 그분의 '부어뻑'되는 것만이 하늘나라 입국사증임을 '예바가족'들께 끊임없이 일깨워 드릴 것입니다. 아울러 시대의 심각성을 알리는 사경추니(四更-) 되어, '예바가족'들을 일깨워 준비시키며, '오늘' 어떻게 사는 것이 '내일' 재림을 맞는 준비인가를 알려 드리는 것이 그 사명입니다.

- 02 파랑새의 시 한 편 **고백** _장원의 님
- 04 예바 광장 / 고마우신 분들 _편집실
- 05 책을 펴며·가슴을 열며 **그리스도인과 반려동물** _권정행 님
- 08 성경과 신앙 개혁 ㉔ **프랑스의 종교 개혁자 칼뱅**
- 11 성경의 무명씨 탐구 ㉕ **기드온의 첩, 세겜 여인**
—“드루마”(Drumah) _남대극 님
- 14 믿음의 조부열전 ㉖ **사르브과 수명의 두 여인** _도현석 님
- 17 최길호의 묵회 단상 ㉗ **행복은 재능이다** _최길호 님
- 20 인도에 살며 ㉘ **가슴 뛰게 하는 이름, '선교사'** _정해욱 님
- 24 B.M.W.의 아프리카 선교 이야기 1. **나의 어린 시절과 아프리카의 꿈** _전경수 님
- 26 하나님과 만나는 자연의 창 ㉙ **옥잠화 향기 같은 기도** _권영순 님
- 28 길을 가다 발을 멈추고 **나이 들어감 & 항 노화** _구철승 님
- 30 예바 건강코너 **비건(Vegan)과 비타민 B¹²** _김명원 님
- 32 물음표 목사의 가려뽑은 생각 ㉚ **순종의 순간** _봉태균 님
- 34 성경 속 말말말 **역지사지 대화법** _김여진 님
- 36 어린이 간식 시리즈 ㉛ **바삭바삭 김 과자!** _유선 님
- 38 한국선교 120주년 기념 연재 **하나님이 나를 한국으로 보내셨다(9)** _테오도라 샤넌버코 왕거린 님
- 42 재림의 나팔소리 **승리하는 팀에 속할 것인가?** _오마르 미란다 님
- 45 매일명상-예수바라기하기 **마음으로 읽는 성경, 더듬어 찾는 하나님** _임승우 님
- 75 공익광고
- 76 공익광고

본지는 비매출이며, 전적으로 후원금에 의존합니다.

예
바
광
장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은 나눔의 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행 3:6) 우리가 가진 것은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 모든 영혼의 필요를 만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바라기를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무료로 전하는 예수바라기를 이웃과 나누기 위해 다음 달 12월 호에는 예수바라기 나눔 운동을 위한 제안이 소개될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바라기 나눔 운동'에 참여할 수 있을지 한 달 동안 기도로 주님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

월간 '예바'는 재림을 학수고대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분들을 위한 무료 월간지입니다.

전화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맥까지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웃이나 가까운 이들에게 소개해 주십시오.

• 한국 010-8535-1844 | • 미국 443-896-7565



* 매달 10불(10,000원)씩 1년간 '예바살리기' 후원금을 보내는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이분들이 계셔서 10월 호 『예바』 출간이 가능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 우리은행 1005-904-444529 예수바라기 ☎ 010-8535-1844

미국 YESUBARAKI, 2752 Brookshire Cir., Woodland, CA 95776 ☎ (909) 894-8660

해외

한국(2024. 8. 30.~9.30.) 기준, 연간 후원자는 1년, *목사 및 은퇴목사

정기후원자 (밀출은 자동이체)	강미령, 강민정, 구태경, 김남형, 김도화, 김혜성, 문덕자, 연영란, 원정옥, 유재숙, 이미란, 이석노, 이희성, 정길주* 정동희, 조상희, 조희진, 차요한, 최영화, 최윤정, 최진주, 황진희 김가일* 김부일, 이동희, 박순자, 박성혜, 이석훈·한영순, 이영숙, 이창희, 임종희, 오남숙, 조복희, 천민, 최경자
연간후원자	김정애, 홍명자, 홍인식, 이득천, 한계성, 이옥남, 정종열·김순섭, 오은자, 이명재, CHOI BO YO, 윤병노, 고갑석, 권정행*, 이중화, 박우순, 김두환, 영원한복음, 전병덕*, 김지연, 김종이, 소복자, 오세욱, 한승희, 김영복, 김상준*, 김병모*, 김연채, 홍정숙, 지동만, 박광해, 김경숙, 김성원*, 김기곤*, 정영주*, 구연순, 한혜남, 윤명, 이선노, 이월섭, 장영수, 소병연
비정기후원자	이소명, 조영미, 무명씨, 김태은, 윤소현, 이시간, 이환균*, 양수현, 허명, 김성희

그리스도인과 반려동물

집에서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인구가 1,500만을 넘어 전체 인구의 1/3에 육박하고 있다. 개나 고양이를 가리키는 호칭도 많이 격상되었다. 가족에서 애완동물로 불리더니 요즘은 반려동물이라고 부른다. 짝 반(伴)자와 짝 려(侶)자를 쓰는 ‘반려’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배우자를 일컫는 표현이다.

반려동물의 유익

초혼 연령이 지체되며 미혼 독신 가구가 증가하고, 고령화에 따른 노인 단독 가구가 늘어나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5%에 이른다. 이들에게 위안을 주는 것이 반려동물이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유익은 이루 셀 수 없을 정도이다. 학자들의 연구

에 의하면 외로움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우울증이 완화되며, 혈압이 내린다고 한다.

개를 키우는 장점 가운데 하나는 운동량의 증가이다.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운동을 시키기 위해 공원을 산책한다. 산책 중에 만나는 반려동물들이 서로 아는 체를 하면 대화는 견주들의 대화로 이어져 서로 인사를 나눈다. 철저히 개인주의로 인해 이웃과 한 번도 말을 섞지 않는 사람들이 반려동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인사를 나누게 되고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개를 키우며 얻는 가장 커다란 유익은 사랑의 학습이다. 하루의 일과를 마친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설 때 제일 먼저 개가 꼬리를 치면서 달려들어 주인을

반긴다. 반려견은 전적으로 주인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견주는 반려견을 위해 무한 책임을 지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신앙에도 영향을 미친다.

반려동물 사육의 단점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의 유익도 많지만, 단점도 만만치 않다. 실내에서 동물을 키우는 것은 비위생적일 수 있다. 알레르기 항원이 쉽게 쌓이는 동물의 털이 날아다녀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며 동물을 매개로 하는 전염병에 걸릴 수 있다. 배변 훈련을 잘 받았어도 돌발적인 상황에서 원하지 않는 장소에 변을 흘린다. 주인은 익숙해져서 냄새를 잘 못 맡을 수도 있지만, 집을 방문하는 손님은 금

방 알아차린다. 냄새와 소음으로 인한 이웃과의 갈등이 조성될 수 있다.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취약 계층이 한 달에 지출하는 애완견의 사료비와 의료비와 용품비는 평균 138,437원이 든다.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개치원'으로 불리는 강아지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한 달에 적게는 235,000원에서 많게는 2,150,000원을 지출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사립 의과 대학의 등록금의 두 배를 넘어서는 액수이다. 외부에서 찾아온 손님에게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 인간관계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 외출이나 출장 혹은 여행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다닐 때, 때로는 입장(入場)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고, 비행기를 탈 경우 좌석 배정에 비용이 든다. 자유로운 삶을 포기해야 한다. 며칠이라도 여행을 계획하려면 가족은 아무에게나 맡겨도 먹이만 제



때 주면 되지만, 반려동물의 삶의 중심은 주인 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과 떨어지면 심한 정서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 시간을 아껴간다. 어린아이는 자라나 스스로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지만, 반려동물은 영원히 자라지 않는 갓 난 어린아이 같아서 때사에 주인의 시간과 손길을 요구한다. 정들게 되면 이별한다. 여러 해 주인을 모시고 다니던 자가용은 새것으로 바꾸면서 물 건너간 지팡이처럼 쉽게 버리지만, 인간의 수명보다 반려동물의 수명이 짧기에 함께 지내며 정들었던 반려동물이 죽을 때 정서적인 충격이 너무나 크다.

그리스도인과 반려동물

하나님은 동물을 사랑하신다. 잠언 12장 10절에는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공훈은 잔인이나라”라고 기록되었으며 십계명의 넷째 계명에는 안식일에는 집에서 기르는 가축도 일을 시키지 말라고 하셨다(출 20:10).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동물이 인간의 반려 자리에까지 오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사도 요한은 밧모 섬에 홀로 유배되었을 때 그의 외로움을 날아다니는 갈매기에게 의지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인은 어느 곳에 홀로 있어도 외로움이나 정서적 갈등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게 의존하지 않고 기도와 성경 연구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 결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역할을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된다. 엘렌 화잇은 “애완동물에게 관심을 쏟거나 말 못 하는 동물들에게 극진한 애정을 바치는 대신에 품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꼴 지어질 수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애정을 바쳐야 한다”(치료봉사, 186)고 권면한다.

내가 사는 일산은 호수공원으로 유명하다. 호수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어머니보다 속칭 ‘개모차’에 개를 정성스럽게 끌고 다니는 견주들을 더 많이 본다. 연로한 부모님을 휠체어에 모시고 다니는 분은 며칠을 걸어야 겨우 한두 번 간혹 눈에 띈다. 다섯째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한다. 개를 데리고 수의사를 찾는 것보다 어머니를 모시고 치과에 가고, 일을 본 개의 뒤를 닦아주는 것보다 치매에 걸린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는 대신 직접 씻어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 이전에 인간의 도리이다.

애완동물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많은 액수의 비용과 시간을 부모를 모시는 일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



권정형 (mbkwon@naver.com) |
 목사, 월간 『예수바라기』 발행인
 영원한복음 대표



프랑스의 종교 개혁자 칼뱅

프랑스의 종교 개혁이 시작됨

당시 종교 개혁 사업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루터와 관계없이 거의 동시대에 사방에서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프랑스도 예외는 아니었다. 프랑스에서 성경의 빛을 명확하게 깨닫기 시작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파리 대학의 러페브르(Leferve) 교수였다. 그는 매우 열심 있고 진실한 가톨릭교회의 추종자였으나 고대 문학을 연구하던 중 성경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빛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루터나 초빙글리가 개혁 사업을 시작하기 전인 1512년에 이미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의 곧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의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Wylie, b.13, ch.1)이심을 깨달았고 그 사실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그의 제자들 중 후일에 개혁의 선두 주자로서 활동한 한 인물이 나타났는데 그가 바로 윌리엄 파렐(William Farel)이다.

러페브르는 주로 그의 제자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가르쳤는데, 그의 제자 파렐은 그 진리를 들고 나가서 공중에게 큰 소리로 전파했다. 이 과정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파리 근교의 모오(Meaux)라는 도시의 한 고위 성직자 감독이 이들과 연합한 것이다. 개혁파의 가르침은 신속하게 전파되었고, 당시 왕이었던 프란시스 1세의 누이도 개혁 신앙을 받아들임으로 개혁의 복음

은 노동자로부터 왕궁에 이르기까지 확산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러페브르는 프랑스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했고 모오의 감독은 자신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성경을 보급한 결과 모오에서는 농부들까지 성경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프랑스 귀족 베르캉의 개혁 사업

당시 프랑스 귀족 가운데 최대의 학자로 알려졌던 베르캉(Louis de Berquin)은 매우 세련되고 용감하고 품위 있는 인격을 갖춘 인물이었다. 동시에 그는 로마교회의 충실한 신봉자이기도 했다. 정직한 양심의 소유자였던 그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밝은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 그는 개혁자 루터를 증오했으나, 성경을 깊이 연구한 결과 루터의 가르침이 로마교회의 가르침보다 성경에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개혁 사업의 선봉자가 되었다. 마침내 그는 프랑스의 로마교회 교도들에게 기피해야 할 매우 두려운 존재로 인식되었다. 그는 로마교회의 당국자들에 의해 세 번이나 투옥되었으나 그의 천재성과 고결한 인격에 호감을 가지고 있던 당시 프란시스 왕이 그를 석방시켜 주었다. 베르캉은 주변의 상황이 악화되고 저항이 증가할수록 더욱더 열심히 성경의 진리를 전파했다.

당시 그의 대적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베르캉을 처형하고 싶었지만 왕의 비호를 받고 있는 그

를 제거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어느 길 거리에 세워져 있던 성모 마리아상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문제로 도시 안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 베르캉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던 수도사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 그 사건이 마치 베르캉의 개혁 사업의 영향이라고 거짓 소문을 내었고, 그 결과로 베르캉은 다시 체포되었다. 공교롭게도 베르캉의 수호자였던 왕이 파리를 떠나 부재중이었으므로 그의 원수들은 베르캉을 신속히 재판하여 사형을 선고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베르캉의 용모는 진리의 화신처럼 빛나고 있었으며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평화스럽고 당당한 모습이었다. 그의 죽음을 지켜보던 수많은 군중에게 거부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을 주었고, 프랑스 전역에 산재해 있는 개혁의 동지들에게 순교를 각오하고 개혁 사업에 매진할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었다. 파리와 모오에서 핍박이 심해지자 러페브르는 독일로 들어갔고 파렐은 동프랑스의 고향으로 돌아가 개혁의 메시지를 전했다.

칼뱅의 출현

파리의 한 대학에 매우 침착하고 총명하고 탁월한 한 학생이 있었다. 그는 로마교회의 충실한 신봉자였으며 개혁자들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들은 화형을 당해야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이 청년이 바로 칼뱅(John Calvin)이다. 개혁파에 가담하여 활동하던 그의 사촌 올리베탄(Olivetan)과 만나서 당시의 종교적 시국에 대하여 종종 토론했으나 사촌의 개혁적 사상이나 교리에 대하여 공감하지는 않았다. 그의 마음 한 쪽에는 개혁 사상에 대하여 무엇인가 끌리는 것이 있었다.

어느 날 칼뱅은 우연히 큰 광장에 나가서 이단자들을 화형시키는 장면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

다. 그들의 평화스럽고 빛나는 얼굴과 늘 어두운 그림자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자신의 신앙에 분명히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자들의 순수한 신앙과 확고한 믿음의 기초가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칼뱅은 본격적으로 순교하는 이단자들의 '기쁨의 비결'이 들어 있는 성경의 참진리를 찾아 연구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칼뱅은 구원이란 교회가 주는 것이 아니고 고행이나 인간의 수고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칼뱅의 출현은 프랑스 종교 개혁에 있어서 새로운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그는 성직자가 되기 위해 교육을 받던 중에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었다. 성경의 참다운 진리를 깨닫게 된 그는 신부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한동안 법률 공부에 치중했으나 마침내 그것도 포기하고 자신의 전 생애를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로 작정한 후 개혁 신앙을 연구하고 전파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다. 유력한 종교 개혁자들이 로마교회 신앙을 포기하고 개혁 신앙에 목숨을 걸고 충성을 바치게 된 배경에는 언제나 '성경'이 있었다.

칼뱅의 활동이 시작됨

가톨릭의 오류와 성경의 올바른 진리를 깨달은 칼뱅은 이제 잠잠히 있을 수 없었다. 칼뱅은 성격이 내성적이고 조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단 한적한 도시에서 그의 사역을 시작했다. 그는 우선 가정들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 가난한 집, 부잣집, 큰 집, 작은 집 가리지 않고 개혁의 복음을 전하며 진리의 증인들을 만들어 놓았다. 기쁜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것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복음은 이웃에서 이웃으로 전해지고, 더 나아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촌락과 도시까지 복음의 물결이 스며들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칼뱅이 다시 파리로 돌아왔을 때 파리에서는 부자들과 유식하고 유력한 사람들 사이에 성경을 연구하며 토론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 로마교회와 배치되는 진리를 발견한 학자들은 가톨릭의 지지자들에게 저항하며 투쟁하는 일까지도 전개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칼뱅은 여전히 집집을 방문하면서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 주고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구원의 도리를 전해 주었다. 당시 프랑스의 황제였던 프란시스 1세의 누이인 마가레토도 개혁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 신앙을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활동했는데, 나중에는 왕궁을 개방하고 설교자를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도 감행했다. 그러나 가톨릭의 성직자들과 지도자들의 반격과 선동의 결과로 무지하고 미신적인 신앙을 가진 평민들이 개혁 신앙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되었고, 프란시스왕도 이에 동조하게 됨으로 교황 측에서는 다시 세력을 회복해 개혁자들과 그 신앙에 동조하는 자들을 화형시키는 일을 재개했다. 칼뱅도 의심을 받게 되었고 그를 체포하려는 계획이 진행되었는데, 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극적으로 파리를 탈출하여 포티어(Poitiers)라는 곳으로 가서 개혁 사업을 전개했다. 얼마 후 다시 파리로 돌아왔으나 프랑스는 이미 개혁의 문이 닫힌 것을 감지하고 일단 독일로 들어갔다.

생지옥이 된 프랑스

이러한 와중에 개혁 운동에 찬물을 끼얹게 된 한 사건이 일어났다. 어느 날 하룻밤 사이에 로

마교회의 미사 제도를 반박하고 공격하는 격문(檄文) 벽보가 전국 각처에 붙여졌다. 심지어 왕의 거실 출입문에도 그 격문이 붙었다. 이에 격분한 왕은 개혁 신앙을 가진 모든 자를 박멸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개혁교도들을 체포하여 화형을 시키는 일이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 왕까지도 이 일에 적극적인 동조자가 되어 그 일에 직접 참여하고 간여했다. 개혁을 주도하던 지도자들과 개혁 신앙을 동조하던 수많은 사람이 화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러나 화형을 당하면서도 그들의 얼굴에 나타난 조용한 기쁨과 관용과 용서의 정신은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에게 저항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 되어 민중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많은 학자와 부자들과 유력한 자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심중으로는 개혁 신앙을 지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개혁 신앙자들에 대한 철저한 박해가 시작되자 자신들도 언젠가는 신분이 노출되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대학 교수들, 학자들, 저술가들, 고급 기술자 등 국가의 존경받고 인정받는 유력한 인물들이, 심지어 왕궁의 신하들 중에서도 프랑스를 떠나 다른 나라로 자취를 감추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로 인해 왕과 신부들은 더욱 분노하게 되었고 개혁의 복음을 믿는 자들을 살살이 찾아내어 징벌하는 화형장의 검은 연기가 프랑스의 하늘을 뒤덮었다. 프랑스에서 개신교도들에게 자행된 이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행위는 장차 프랑스 혁명과 함께 닥쳐올, 무신론자들이 가톨릭교도들에게 저지르게 될 무시무시한 단두대 만행의 씨앗이었다. 🌱

*이 내용은 엘렌 G. 화이트의 『각 시대의 대쟁투』 12장 프랑스에서의 종교개혁을 발췌 정리한 글이다.

기드온의 첩, 세겜 여인—“드루마”(Drumah)

제5대 사사 ‘기드온’의 등장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c. 1400~1050 BC)에 출현한 다섯 번째 ‘사사’(士師, judge)이다. ‘사사’는 히브리어로 שֹׁפֵט(sôpêṭ, 쇼페트)인데, 이것은 ‘재판하다, 심판하다’(judge)라는 뜻의 동사 שָׁפַט(sāpaf, 사파트)의 현재분사형으로서 ‘재판하는 (사람), 재판장, 심판관’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사’를 영어로는 ‘judge’라고 한다. 우리말 ‘사사(士師)’는 중국어 성경에서 차용한 것인데, 중국에서는 “고대에 감옥(監獄)을 다스리는 장관(長官)을 가리키는 칭호”였다. 중국인들이 이 단어를 성경의 שֹׁפֵט(sôpêṭ, 쇼페트)의 역어로 사용하자 한국어와 일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빌려 쓴 것이다.

성경의 ‘사사’는 여호수아가 사망한 후부터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이 등장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군사 및 치안 지도자였다(삿 2:16~18).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는 때에 외부로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나 침입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일으키셔서 백성을 혼란과 도탄에서 건져주셨다. 인근의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억압한 것은 이스라엘이 배도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방법이었다.

제4대 사사인 ‘여선지자 드보라’(삿 4:4)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그 땅에 40년 동안 평화가 지속된(5:31)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자, 이번에는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7년 동안이나 괴롭혔다’(6:1~6). 이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일으킨 ‘사사’가 ‘기드온’이다(6:11). ‘기드온’(일명 ‘여룹바알’[‘바알과 논쟁하다’라는 뜻, 6:32; 7:1]은 불세출(不世出)의 용사로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다는 사실을 확증한 후에(6:14~27), 일어나서 정예부대 300명을 이끌고 미디안 군대를 대항하러 나갔다(7:7~8). 이 300명의 용사들은 손에 나팔과 헛불만을 들고 전쟁터로 나가서 혁혁한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다. 적군의 12만 명은 죽었고, 1만 5천 명만 생존했다.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한 ‘기드온’은 구약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의 주인공일 뿐만 아니라 신약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도 포함된(히 11:32) 특별한 존재이다. 므낫세 지파의 출신으로 아비에셀 족에 속한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삿 6:11)은 여러 명의 아내들을 가져서 총 70명의 아들을 낳았다(8:30). 그중의 한 아들은 세겜에 사는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인데, 성경은 그를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이라 일컬었고, 그의 이름은 '아비멜렉'('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라고 했다(8:31).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자 사람들은 그를 그의 고향 땅 아버지의 묘실에 장사했다(삿 8:32). 그가 사사로 활동하던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태평했고(8:28) 하나님을 잘 섬겼으나, 그가 떠나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짓 신인 바알을 섬기며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8:33~35). 이와 같은 혼란한 틈을 타서 일어선 사람이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다(9:1). 그는 그의 외가가 있는 세겜으로 가서 외척(外戚)들에게 호소하기를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9:2)고 했다. 이 말에 귀가 솔깃해진 세겜 사람들은 그에게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주면서 그를 격려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그 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무리들을 매수해 자기를 따르게 했으며, 그 길로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자기의 이복형제인,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반

석 위에 처서 죽였다. 이때 유일하게 죽음을 모면한 사람은 기드온의 막내아들인 '요담'이었다. 이어서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의 등에 업혀 졸지에 왕으로 선언되었다(9:3~6).

사태가 이렇게 전개되자 이스라엘에는 외세의 침입 때 못지않게 사회가 불안했다. '기드온'의 70 아들 중 유일한 생존자인 '요담'은 다른 사람들의 충동을 받아서 그리스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비멜렉'을 비방하는 비유의 연설을 한 후, 그를 두려워하여 브엘로 도망했다(삿 9:7~21). 아비멜렉이 왕 노릇을 하기 시작한 지 3년에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셔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고, 이 둘 사이에 끔찍한 다툼과 대결이 일어났고, 마침내 '아비멜렉'은 세겜 망대 앞을 지나는 사이에 그 위에서 한 여인이 내려던진 맷돌 위 짝을 맞아 죽고 말았다. 성경은 '아비멜렉'이 이와 같은 죽음을 당한 것은 그가 그의 형제 70명을 죽인 것에 대한 보응이요 '요담'의 저주가 응한 것이라고 기록했다(9:22~57).

루이 긴즈버그(Louis Ginzberg, 1873~1953)가 쓴 『유대인의 전설』에는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설명이 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들을 돌 위에다 처서 죽였듯이, 아비멜렉 자신도 머리에 맷돌을 맞아서 죽었다. 요담이 그의 비유에서 이전 사사들, 곧 웃니엘과 드보라와 기드온을 각각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와 포도나무에 비유한 반면에 아비멜렉을 가시나무에 비유한 것은 적절한 일이다”(The Legends of the Jews [Philadelphia, P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38], IV:101).

‘기드온’의 첩—‘드루마’(Drumah)

그 악명 높은 ‘아비멜렉’의 어머니요 ‘기드온’의 첩인 세겜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는 감춰져 있으나 요세푸스(Josephus)가 저술한 『유대인 고대사』(Antiquities of the Jews)에는 ‘드루마’(Drumah)라고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그녀의 이름이 언급된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기드온은 아내를 여럿 두었기 때문에 적자가 70명이나 되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첩인 드루마(Drumah)의 소생인 서자 아비멜렉이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죽은 후 그의 어머니가 있는 곳인 세겜에서 살았다. 그는 비행을 저지르기로 이름난 악당들을 돈으로 산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그의 형제들을 한꺼번에 모두 살해했다. 그러나 요담은 용케도 피하여 목숨을 건졌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스스로 지배자로 행세했다. 그는 율법을 준행하기보다는 자기 멋대로 행동하였다. 그는 또한 정의를 수호하려는 자들을 마구 짓눌렀다.”(『요세푸스, 김기찬 역[서울: 생명의말씀사, 2003], 1:330).

사사기의 맨 마지막 장 끝 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사 21:25) 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었다. 그와 같이 혼탁하고 무질서한 시대에는 ‘기드온’과 같은 영웅이 나타나서 사회의 질서를 확립하고 치안을 유지하기도 했지만, 그의 아들 ‘아비멜렉’처럼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수많은 형제들을 살육함으로써 온 백성을 공포에 사로잡기도 했다.

‘드루마’라는 여인이 ‘아비멜렉’을 어떻게 키웠는지는 알 도리가 없다. 아마도 그녀는 첩(妾)이라는 처지 때문에 한스럽고 불만스러운 삶을 이어 갔을 수 있고, 따라서 ‘아비멜렉’도 그의 어머니의 그와 같은 삶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서자(庶子)들은 그들이 받는 사회적 푸대접으로 인해 빛나간 성격과 반항적인 행동을 하기가 쉽다. 어쩌면 ‘아비멜렉’의 일생과 그의 최후는 필경 그에게 주어진 운명과 사회적 폐단의 희생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

* 지난 5년 동안 이주환 교수와 함께 <성경의 무명씨 탐구>를 연재할 수 있던 것은 저희 두 사람에게 크나큰 특권이었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이 귀한 지면을 할애해 주신 『예수바라기』의 편집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저희들의 무던 글을 애독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다음 호(2024년 12월 호)에 이주환 교수가 집필하는 기사로써 <성경의 무명씨 탐구>는 막을 내립니다.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남대극 님(dnam@syu.ac.kr) | 신학박사. 삼육대학교 명예교수



사르밧과 수넴의 두 여인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왕상 17:14).

과부는 엘리야의 부탁을 따라 그를 대접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여인에게 길고 긴 기간 동안 아사를 면하고 연명할 수 있는 복이 내렸다. 엘리야를 처음 만났던 그날, 선지자가 도착하기 전 여인은 모든 삶의 희망을 포기했었다. 그러나 선지자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인은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얻었고, 그 아들의 목숨도 부지할 수 있었다.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들이 겨우 살아났는데, 이번에는 그 아들이 중병에 걸려 시름 시름 앓다가 그냥 죽어버렸다. 엘리야는 병든 여인의 아들을 치유의 능력으로 고치지 않고 어떻게 했는가? 그 아들은 어쩌면 급사했는지도 모른다. 아마도 선지자와 과부는 그 아들을 살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들이 죽자, 땅이 꺼지는 듯한 느낌과 함께 그녀는 모든 희망을 버리고 선지자를 원망했다. 그녀의 신학은 특이하다. 어찌하여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

나이까”(왕상 17:18). 여인은 선지자가 온 것이 그들의 목숨을 살리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죽이려고 온 것이라 했다. 그리고 이 모든 죽음은 자기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엘리야는 죽은 아들을 들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침상에 누이고 기도한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였나이까”(왕상 17:20).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21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살리셨다. 한글 개역에는 “혼”이 돌아왔다고 했는데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네페쉬(**נֶפֶשׁ**)로 ‘생명’이라는 뜻이다. 살아났다는 표현이다. 여기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가 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은 살아났고, 과부는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24절).

하나님은 이방인 과부의 믿음을 보시고 엘리야를 그 집으로 보내셨고, 여인은 엘리야의 말을 믿고 그에게 먼저 빵을 대접했고,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여인의 믿음은 더 깊어졌고 더욱 굳게 되었다. 여인의 경험은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롬 1:17) 라는 표현을 상기시킨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거의 다 사라진 시절, 그 과부는 작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고, 그 결과 큰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

수넴 여인

둘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수넴 여인이다. 경건한 이 여인은 선지자 엘리사가 수넴을 방문했을 때 환대했다. 그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훌륭한 습관을 지녔다. 엘리사는 그렇게 행인을 환대하는 그 귀부인의 정성에 감동해 그 길을 갈 때마다 그 집에 들러 음식을 먹었다.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과 그가 그리로 자주 지나는 것을 알고, 그를 위해 남편에게 부탁하여 방을 준비했다(왕하 4:8~10). 모든 가구가 갖추어진 방을 지었다. 침상, 책상, 의자, 촛대가 있는 작은 방이었다.

한번은 엘리사가 그 방에서 머물 때 여인을 불러서 흑시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구할 것이 있는지 물었다. 여인은 그런 것이 없다고 했다. 그녀는 그저 백성 중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든 보답하고 싶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그 집에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다고 말했고, 거기서 힌트를 얻은 엘리사는 그 집에 아들을 선물로 주고 싶었다. 오랫동안 아들을 낳지 못했던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듣자 믿을 수 없었다. 여인은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16절)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들으시고, 그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리하여 그녀는 아들을 얻었고, 그

아들은 잘 자랐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행복했다.

갑자기 두통이 온 아들이 아프다고 하자 아버지는 아들을 어머니에게 보냈다. 얼마 후 아들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고 말았다. 어머니는 그 아들을 엘리사의 침상에 올려놓고, 남편에게는 아들의 죽음을 알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오겠다고 했다. 남편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가느냐고 물었다. 그냥 문안하러 간다고 했다. 어머니는 나귀를 타고 급히 갈멜산으로 갔다(왕하 4: 19~25).

게하시가 그 여인이 오는 것을 보고 엘리사에게 알렸고, 엘리사는 게하시를 보내어 안부를 물었다. 여인은 모든 것이 평안하다며 실상을 숨겼다. 그러나 산에 이르러 엘리사를 만나자 그녀는 엘리사의 발을 안았다. 엘리사와 게하시는 당황했고, 게하시는 그녀를 물리치려고 했지만 엘리사는 “가만 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27절)라고 했다. 여인은 원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28절). 엘리사는 그녀의 아들이 죽은 것을 알고 즉시 게하시를 보내고자 했다. 게하시에게 명령이 주어졌다. 허리를 묶고 달려가라. 내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올려놓으라. 그러나 어머니는 엘리사를 붙든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30절). 드디어 엘리사는 여인과 함께 아이가 있는 곳으로 향한다. 그들보다 앞서 달음박질한 게하시의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



지 않았다.

엘리사는 문을 닫고 아이와 단둘이 있었다. 기도하고 그 아이 위에 엎드려 아이의 체온을 올렸다. 그렇게 두 번을 하고 나니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떴다. 아이가 죽었을 때에 여인의 실망은 말할 수 없이 컸다. 그러나 그녀는 기억했다.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집에 아들을 주셨으니, 이 죽음의 문제도 선지자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홀로 이 문제를 들고 선지자에게 갔던 것이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내려 했을 때, 여인은 게하시를 믿지 못했다. 여인은 게하시와 엘리사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알았다. 여인에게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다시 생명을 돌려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비록 너무도 슬프고 괴로운 일이었지만, 그녀는 선지자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게 할 수 있었다.

여인의 환대는 보상을 받았고, 또한 여인의 믿음은 보상을 받았다. 우리가 이 두 여인의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한국에서 여인들을 부를 때에 수원댁, 화성댁 하고 불렀듯이 사르밧 댁과 수넴 댁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께 대한 깊은 믿음이 있었으며, 하나님의 사람을 정성껏 섬겼으며, 죽었던 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살아서 다시 어머니 품속으로 들어온 놀라운 경험을 했다. 이스라엘에 믿음이 희귀하던 그 때에, 한 이방 여인과 한 이스라엘 여인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오롯이 지켰다. 🌿



도현석 님(hdoh@southern.edu) | 신학박사(Ph.D.), 목사, 미국 Southern University 신약학 교수



행복은 재능이다



헤르만 헤세 (Hermann Hesse, 1877~1962)는 독일 출신의 소설가, 시인, 화가로 20세기 문학에서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소설 『유리알 유희』에서 새겨 볼 만한 여러 유명한 말을 했다. 많은 유명한 표현 중에 내 마음속에 가장 인상 깊게 들어온 표현이 하나 있다. 그것은 “행복은 대상이 아니라 재능이다”라는 표현이다. 행복이 재능이라니! 많은 사람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재능이 많다. 그러나 행복이 재능이라 생각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도전적이고 신선한 이 문장을 붙들고 그 의미에 대해서 오랜 시간 생각했다. 곱씹을수록 깊은 의미를 던져주는 말이었다.

모든 재능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부에 있다. 행복이 재능이라는 말은 다른 재능 처럼 행복도 사람의 내부에 있는 특성이다. 예를 들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목소리에 특별한 특성이 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색감과 손놀림과 정서에 특별한 면을 가지고 있다. 장사에 재능 있는 사람은 마음이 흐르는 길과 돈의 길을 잘 안다. 재능은 본질상 사람 속에 있는 어떤 것이다. 노래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 외부의 환경이 어떠한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그림에 재능이 있는 사람도 어떤 조건에서도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행복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바깥 환경이 어떠하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 보통 사람들은 외부 조건에서 행복을 찾는다.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만족스러우면 행복하리라 생각한다. 좋은 점수를 얻는대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경제적인 안정이 있거나 승진을 하거나 모든 일이 평탄하게 풀려 가면 행복하리라 생각한다. 과연 그럴까? 나폴레옹은 천하를 자신의 손에 넣은 황제가 되었지만 고백했다. “내 생애에서 행복했던 시간은 단 7일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헬렌 켈러는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3중 장애를 가지고 살았지만 “인생은 참 아름답습니다. 나에게서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다.

이러한 예를 우리 주변에서 수 없이 찾을 수 있다. 이건희 회장의 막내딸 윤형 씨가 유학 중 자살한 사건은 한국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한국 최고의 재벌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그녀의 자살은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사건은 환경이 행복을 주거나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든 것을 가지고도 불행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이처럼 외부적인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행복 재능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 행복 재능이 있는 사람은 외부적인 환경이 어떠하든지, 어떤 도전과 시련이 있든지 그 상황을 행복으로 만드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조건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어떤 조건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는 여러 재능 중에서 가장 요긴한 재능이라 할 수 있다.

2024년 파리 올림픽 사격 경기에서 은메달을 딴 김예지 선수가 있다. 김예지 선수는 은메달을 따지만, 금메달을 딴 선수보다 더 유명해졌다. 테슬라 회장 일론 머스크가 냉정하고 세련된 그녀의 사격 모습에 찬사를 보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인터뷰하는 것을 보고 감동했다. 김 선수는 자신의 주 종목인 25m 사격에서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김 선수는 그 종목에서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런데 김 선수는 시간을 초과하는 실수로 영점 처리를 받으며 탈락하고 말았다. 탈락하고 나서 김 선수가 말했다. “0점 했다고 세상 무너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올림픽이 큰 무대이고 이 스포츠가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지만 전부는 아니지요. 이 정도 갖고 울 일인가요? 당연히 슬프지만 4년 뒤에는 더 노력해서 약속드린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당당한 그녀의 태도에 일부 팬들이 올림픽이 장난이냐며 비난을 퍼부었다.

사회자가 그런 비난받는 답변을 한 이유에 대해 질문하자 이렇게 말했다. “제가 가장 속상하지요. 그런데 이미 지나간 것을 붙잡고 있으면 무意义해요. 저는 말의 힘을 믿습니다. 제가 긍정을 얘기해야 빨리 좌절에서 벗어날 수 있고 희망을 찾을 수 있지요.” 찰스 스윈돌 목사는 “문제의 10퍼센트는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나머지 90퍼센트는 우리의 반응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말했다. 김예지 선수는 문제에 파묻히지 않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반응을 했다. 김예지 선수는 행복 재능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행복이 외부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사람의 내부, 곧 태도에 있다면 과연 행복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 그것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이다. 로버트 에몬스와 마이클 맥컬로우는 이에 대한 주목할 만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들은 참가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지시한 내용을 기록하게 했다. 첫 번째 그룹은 감사한 것, 두 번째 그룹은 불만족스러운 것, 세 번째 그룹은 중립적인 내용을 기록하게 했다. 그 결과 감사한 것을 기록한 그룹이 감정적으로 더 행복하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

송정란 작가는 『감동의 습관』이란 책에서 감동의 순간을 다음과 같이 열거했다.

"좋아하는 작가의 신작 소설을 사 들고 책상에 앉았을 때,
기차 시간표를 보며 여행의 계획을 세우던 스무 살의 여름,
무심히 올려다본 하늘에서 비행기가 낮게 지나가던 순간,
생각지도 않았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봄날 오후,
비 내리던 날,
할 일 없이 따뜻한 방에 들어앉아 마셨던 커피,
증오하던 누군가를 용서했을 때,
눈물로 밤을 지새운 어느 새벽에 느껴졌던 바람..."

책 제목 『감동의 습관』에 감동을 『감사의 습관』으로 바꾸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감동과 감사는 행복의 양면과 같고, 형제와 같다. 감동

을 많이 느끼는 사람,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작가가 언급한 감동의 순간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 소중함을 모르고 지나갔던 작고 소소한 일상이 모두 소중한 것이다. 송정란 작가의 이 글을 읽으며 공감이 갔다. 세월을 돌아보면 두 딸이 어렸을 때 함께 보냈던 시간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우리 삶의 순간순간은 모두 영화 같고 시 같은 아름다운 시간이다. 그 소중한 시간을 감동하며 감사한다면 행복한 삶이 될 것이다.

행복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통 낙심하고 좌절할 모든 일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할 줄 안다. 사도 바울이 가장 현저한 예이다.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1~13). 바울처럼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통해 결국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고 모든 환경에 감사하게 된다. 신앙의 사람은 행복 재능이 가장 많은 사람이다. 🌱



최길호 님(deepinggrace@naver.com) | 목회학 박사, 전) SDA삼육여학원 대표이사, 『국제문예』 수필부문 등단, (사)국제문인협회 회원, 블로그: deepingrace



가슴 뛰게 하는 이름, '선교사'

“사모님, 이번 주 제가 특창을 맡았는데요, 반주해 줄 수 있나요?”

신학대학 기숙사 사감을 맡고 있는 이반이 말했다.

실용 음악을 전공한 동문 선교사인 이반은 노래를 잘했다.

“어머, 너무 오랜만에 반주하는 건데.

그래, 그럼 오늘 점심시간에 맞춰 볼까?”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반과 나는 점심시간에 교회에서 특창 연습을 했다. 인도에서 특창을 반주할 때는 악보 없이 해야 할 때가 많아서 난처할 때가 많은데 다행히 이번 노래는 악보를 구할 수 있어서 여유롭게 반주할 수 있었다.

교회 안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29기 선교사들

도 있었다. 오전 수업을 마치고 정오의 기도를 하는 것 같았다. 조별로 나뉘어서 노래를 부르고 기도하는 선교사들. 그중에는 우리가 연습하는 피아노 바로 옆에서 기도하는 선교사들도 있었다.

선교사들은 다른 어느 때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보니 바로 그날 저녁이 선교사 파트너와 선교지를 발표하는 날이었다. 선교사들은 어떤 파트너를 만나게 될지 또 어떤 선교지를 배정받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는 것 같았다. 기도회가 끝나고 모두 밥을 먹으러 가는가 싶었는데 우리 선교사와 몇 선교사들이 다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몇몇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아주 살짝 들은 것이었지만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선교지로 가기 전에 준비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데도 마음이 뭉클했다. 이반도 나와 같은 마음인 듯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날 저녁 기도 주일이 마치고 29기 선교사들의 선교지 및 파트너 발표가 있었다. 선교지와 파트너가 발표될 때마다 큰 소리로 환호성을 지르는 선교사들. 어떤 선교사들은 침착하게 웃는 얼굴로 파트너가 된 선교사와 악수하고 함께 앉았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소리를 지르거나 경충경충 뛰면서(거의 눈물을 흘리며) 파트너가 된 것을 기뻐했다.

일 년에 두 번 선교사를 훈련시키고 파송하는데 선교지와 파트너 발표는 항상 흥분되고 벅찬 순간이었다.

발표가 다 마쳐지자, 파트너끼리 기도했다. 어떤 선교사들은 부동커안고 울며 기도하고, 어떤 선교사들은 기도 전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꼭 전쟁터로 나가기 전 함께 기도하는 전우들의 모습과도 같았다.

이제 안식일이 지나면 선교지로 향할 테지. 이들의 일 년이라는 삶은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까. 아름답고 행복하기만 하지는 않겠지. 때로는 다투고 넘어지고 두렵고 외로운 시간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 시간이 그들의 생애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진 시간이 되리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을까.

다음날은 안식일 준비일이었다. 인도 1000명 선교사훈련원의 전통이 있다면 바로 선교사들이 파송되는 금요일 저녁 예배가 마치면 세족 예



식을 한다. 때로는 선교사 파트너끼리 서로의 발을 씻어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캠퍼스 훈련원 목사들과 동문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향하는 선교사들의 발을 씻어준다. 이번 29기 선교사들의 세족 예식도 훈련 목사나 직원들 그리고 동문 선교사들이 순서에 맞게 선교사들의 발을 씻어주고 기도해 주었다.

캄캄한 저녁, 기도의 동산에서 비취는 빛은 선교사들의 노랫소리와 함께 기도의 동산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52명의 29기 선교사들은 긴장한 얼굴로 기도의 동산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고 훈련 목사들과 직원들 그리고 동문 선교사들은 익숙한 듯 수건과 물이 담긴 대야를 들고 차례로 선교사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했다. 사모들과 여자 동문은 여자 선교사들의 발을 씻어주었는데 나도 함께 참여했다.

눈이 오는 추운 겨울이 있는 히마첼 선교지로 가는 바디양훈, 잘란 주에 있는 학교로 가는 도리, 그리고 우리가 운영하는 자히라바드 학교로 가는 마니히로. 이제 스무 살이 갓 넘은 우리 29기 선교사들의 발이 인도의 곳곳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다. 그렇게 선교사들의 발을 씻어주는데 끝 쪽에 앉아 있는 레굴러가 보였다. 레굴러 선교사

는 29기 선교사로 훈련받고 이제 게이트 밴드 음악 선교사로 일 년을 봉사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실 나는 레굴러를 이미 알고 있었다. 2015년 한국의 삼육재활센터 교회에서 봉사대로 왔을 때 우리 캠퍼스에서 10시간이 걸리는 민스카 마을로 갔었는데 그 마을에서 꼬마 레굴러를 만났다. 레굴러는 아주 작고 귀여운 여자아이였다. 얼마나 노래를 잘 불렀던지 몇 번씩 친구와 함께 교회에서 특창을 하곤 했다. 삼육 재활센터 교회 봉사대는 그 후로도 몇 해 동안 같은 곳 민스카 마을로 전도회를 왔고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민스카 마을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후원도 했다. 그리고 레굴러도 그 도움을 받아 공부했다.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던 귀여운 꼬마가 이제

는 노래 부르는 선교사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삼육재활센터 교회 봉사대 팀이 이 모습을 직접 본다면 얼마나 뿌듯하고 기쁘실까. 나는 여러 생각을 하면서 레굴러에게 발을 씻어 줄 수 있다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모들과 여자 동문들이 순서대로 여선교사들의 발을 씻어주고 있었기에 내가 나서서 레굴러 선교사의 발을 씻어 주겠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저 레굴러의 발을 씻어주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만 하고 있을 뿐이었다.

세족 예식이 거의 다 마쳐갈 때쯤 나는 수건과 물이 담긴 대야를 들고 마지막으로 발을 씻어 줄 여선교사가 더 있는지 확인하면서 기도의 동산 끝부분으로 걸어갔다.

대부분의 29기 선교사들이 세족 예식을 마쳤다고 내게 말할 때 누군가 말했다.





“사모님, 레굴러가 남았어요.”

나는 그 순간 맨 끝에 앉아 있는 레굴러를 바라봤다. 레굴러는 수줍은 미소를 띠며 나를 보고 있었다. 난 그 순간 하나님께 말했다.

‘아, 하나님, 아니 요즘 저를 이렇게 티 나게 사랑하시면 어떡해요. 아무리 제가 레굴러의 발을 정말 씻어주고 싶다고 혼잣말했어도 그렇죠. 어쩔 이렇게 제가 레굴러의 발을 씻어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건가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나는 환한 미소를 띠며 레굴러에게 다가갔다. 센스쟁이 하나님의 배려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레굴러에게 말했다.

“레굴러, 내가 사실 너의 발을 꼭 씻어주고 싶었거든. 너무 기쁘다.”

그렇게 나는 레굴러의 발을 씻어주고 레굴러를 위해 그리고 그녀의 선교를 위해 기도드렸다. 레굴러와 기도를 마친 후 나는 레굴러를 꼭 안아주면서 말했다.

“레굴러야, 고마 숙녀였던 네가 이렇게 커서 선교사가 되어서 너무 기뻐. 일 년 동안 하나님과 특별한 경험을 많이 하도록 기도해.”

선교사로 있으면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나고 물어본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사람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것, 평범했던 청년들의 삶 속에 선교사라는 이름이 주어지고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보는 것.’ 이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말이다.

29기 선교사들이 이제 새로운 선교지로 파송되었다. 레굴러는 게이트 밴드로써 첫 번째 일정으로 청년 캠프에서 노래를 부르며 1000명 선교사를 홍보하기 위해 다섯 명의 음악 선교사와 함께 나갈랜드로 향했다.

하나님은 레굴러와 29기 선교사들을 위해 어떤 특별한 선물들을 준비해 두셨을까? 벌써 그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진다. 🍀



정해옥 님(modumee@gmail.com) |

배진성 목사님과 두 아들 성민이 현민이와 함께 인도에서 12년째 알콩달콩 살아가고 있다. 『나마스떼 인디아』의 저자이자 브랜치 작가로 활동중이며 인도에서 경험한 이야기들을 글로 나누고 있다.



B.M.W.의
아프리카 선교 이야기

1. 나의 어린 시절과 아프리카의 꿈

내가 어려서 교회 다닐 때 안식일 학교 시간에 이런 노래를 자주 불렀다.

“아프리카 어디메노 한국에서 수만리...
바다 건너 구름 저편 야자수 무성한 곳
언제나 언제나 ...주의 복된 이 기별“

왜 내가 아프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중남미 나라 26개국에 자전거를 나누는 사역을 하게 되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 속에 나를 사용하여 이 일을 이루게 하신 것이다. 내가 초등학교 3학년인 열 살 때에 선교사 중 한 분인 위경수(Wilcox) 목사가 광천 초등학교를 방문했는데 우리 교실에 방문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영어로 말씀하여 그 의미를 잘 몰랐지만,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분을 바라보며 나도 성장하면 선교사가 되어야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 이때까지 미래에 대한 꿈을 구체적으로 갖지 않았었는데 이날 내 마음이 감

동된 것을 보면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나는 칠 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다. 당시 대부분의 아이들처럼 나도 모진 가난과 배고픔을 겪었고 어느 집 자녀들처럼 천방지축으로 자라났다. 아버지는 신앙을 하지 않았으나 예수님을 신실히 믿었던 어머니 밑에서 모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신앙은 내 뜻이 아닌 그저 어머니의 신앙 덕분이었다. 가난한 집안에서 어머니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우기 위해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님을 잘 가르쳐 주었다.

다섯 살 때쯤의 기억이다. 어머니는 교회를 직접 건축했는데 공사장에 찾아가 어머니 옷자락을 잡고 교회가 지어져 가는 모습을 바라보곤 했다. 마침내 교회가 완공되자 당시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새로 건축된 조그마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얼마나 기뻐던지. 맨 땅바닥

에 가마니를 깔고 호롱불을 켜 놓고 그곳에서 설교하는 어머니의 말씀을 재미있게 들곤 했다.

큰형이 성장하여 서울로 유학을 갔다. 한국 삼육고등학교(13회 졸업)에 입학해 고학으로 공부를 했고 큰누나와 둘째 형은 광천 삼육고등학교에서 온갖 굶은일을 하며 공부했다. 둘째 누나와 셋째 형 그리고 동생과 나는 어머니와 함께 집에서 농사일을 도우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다. 아버지는 천안 시청에 가서 일을 하곤 했다. 그래서 아버지를 자주 만날 수가 없었다. 나는 아버지께 대한 깊은 사랑을 잘 모른다. 우리는 오직 어머니와 함께 가정 일을 돌보며 시골에서 열심히 생활했다.

어머니는 우리 동네 첫 재림 신자로서 교회 예배소장(충남 홍성군 은하면 대울리 교회, 현 은하 참사랑 교회)으로 삼십여 년 동안 교회를 돌보았다. 어머니는 주변 이웃들을 집집 방문하며 복음을 전했고 학교가 파한 후에 놓고 있는 아이들을 불러와서 먹을 것을 나누어주며 성경을 가르치고 열심히 예수님을 소개했다. 내게 전도 열정이 있다면 아마도 내 신앙의 모델이신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아서일 것이다.

내가 초등학교를 가야 할 나이가 되었을 때였다. 나는 삼육학교를 보내주지 않으면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어머니는 난감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집에서 50미터 거리에 1,200여 명이 공부하는 큰 초등학교가 있어서 형이나 누나들도 모두 이 학교(대울리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동생도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여덟 살이 되어 학교에 입학해야 했는데 나는 생뚱맞게 삼육학교를 보내주지 않으면 절대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하여 마침내 다른 친구들보다 두 달 늦게 광천 삼육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어머니는 이미 광천으로 나가서 고학으로 중·

고등학교를 다니는 누님과 형님과 상의하여 동생을 데려가게 했다.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광천 삼육초등학교에 입학만 하도록 하고는 홀로 집으로 걸어갔다. 고향 마을에서 광천까지는 삼십리 길이다. 나를 두고 떠나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고 한없이 울었던 기억이 난다. 교실로 들어서니 나를 반겨주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었고 나는 외톨이 신세가 되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어린 나를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하셨을까?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훈련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 사업에 쓰고자 일찍부터 부르시지 않았나 생각하곤 한다.

사무엘은 어머니의 신앙과 기도 습관을 오롯이 물려받았을 것이다. 어머니의 무릎에서 성경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란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기도의 삶이 몸에 뻗은 것이다. 그는 평생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고 마침내 나라의 모든 백성이 존경하고 따르는 영적인 아버지가 되었다. 사무엘의 어머니처럼 나도 기도하는 어머니 아래서 자랐기 때문에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아프리카 오지에서 20여 년간 선교 봉사하는 일을 기도로 하게 된 것 같다. 고인이 된 나의 어머니, 장차 하늘에 가서 만날 어머니께 이 글을 드리는 심정으로 그동안 아프리카 선교사로 일하며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바라기』 지면을 빌어 나누고자 한다. 🌿



전경수 님(junks58@gmail.com) |

목사, B.M.W.(세계 자전거 지원 선교회) 회장



옥잠화 향기 같은 기도

초여름에 은방울꽃 향기가 있다면 늦여름은 옥잠화 향이 퍼져나가는 때다. 연초록의 넓은 이파리 위로 쭉 올라온 꽃대에 우아하고 고고하게 피는 희디흰 옥잠화는 길쭉한 종 모양을 하고 있다. 꽃은 줄기 끝에서 여러 송이가 무리 지어 피며, 가름한 모양의 꽃잎이 부드럽게 겹쳐있다. 색상은 보통 흰색인데 연보라색, 또는 연한 자줏빛을 띠는 것도 있으며 깨끗하고 순결한 인상을 준다. 꽃의 크기는 약 4~6cm 길이로 피어나며, 백합화와 비슷하나 꽃잎이 더 좁고 작다.

옥잠화의 향기는 은은하고 섬세하며 달콤하다. 백합처럼 지나치게 강하지 않고 연하게 퍼지는데 상쾌한 느낌을 주어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 특히 저녁 시간에 향기가 더 강해지며, 주변을 가볍게 감싸는 듯한 신비로움도 준다. 정원을 가진 사람들은 대개 이 향기롭고 사랑스런 꽃을 빠뜨리지 않고 심는다.

삼육대학교 백주년 기념관 옆에도 뜨거운 여름날의 열기가 찾아들 무렵이면 옥잠화가 해맑은 얼굴을 다소곳이 내민다. 봄날의 노랑 분홍 화려한 꽃들과 초여름의 싱그러운 하양 보라 꽃



잔치가 끝난 후 산과 들이 온통 진초록으로 물들어 있을 무렵 옥잠화가 초록 숲 궁전의 문을 열고 고아한 자태를 드러낸다. 이 꽃을 발견하는 순간 눈부신 그 색상에 감탄하고 그윽한 그 향기에 빨려들어 곁을 떠날 수 없다. 안식일에 교회에 갈 때면 이 꽃 동무를 만나고자 일부러 빙 둘러서 걸어간다.

기분을 참 좋게 하는 옥잠화의 달콤한 향기를 맡으면 우리가 올리는 기도를 향(香)에 비유한 성경말씀이 생각난다. 요한계시록에는 성도의 기도를 하늘 보좌를 향해 올라가는 향으로 묘사하고 있다. 우리의 은밀한 기도, 소리 없이 마음으로 아뢰는 간구도 공중에 흩어져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손에 들려 하늘 보좌에

까지 이르는 것이다. 기분을 좋게 해주는 꽃향기와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관심이 우리에게 향하도록 이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신다는 분명한 보증이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는 니라.”

구약의 성소 안 분향단에서 피운 향이 쉬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듯이 우리가 이 죄의 세상을 안전하게 통과하려면 하나님을 끊임없이 부르는 간절한 기도가 필수다. 그리하여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 5:17)는 권면을 하고 있다. 그렇다! 우리는 순간순간 기도의 호흡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총에 의지해야만 교만과 탐욕의 돌부리에 채여 넘어지거나 염려와 걱정의 가시밭에 걸려 찢기지 않을 수 있다.

죄에 물들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위해 드리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타인을 사랑으로 안아주는 중보기도는 더욱 아름답다. 달콤한 꽃향기가 주변을 향기롭게 물들이듯이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한다.

중보기도의 놀라운 능력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인도하는 일에도 필수다. 미국 유학 시절 남편이 안식일 오후마다 성경을 가르친 한 부부가 있었다. 가끔 교회에 나오고 교우들과 어울리기도 했으나 침례 받아 교회의 일원이 되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최종 결심은 하지 않았다.

남편의 학업이 끝나서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그 부부는 우리의 중보기도 목록에 여전히 들어 있었다.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뒤 그들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 부부 중 아내가 침례 받고 신실한 성도가 되어 있었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었다. 아마 남편도 아내의 중보기도로 하나님 품으로 마침내 돌아올 것이다.

이후로 한층 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자녀와 이웃과 친척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지인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한다. 사람들을 만날 때 기도 부탁을 받으면 중보기도 노트에 메모해 두고 매일 기도하기를 잊지 않는다. 초기 교회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 베드로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동안 천사가 감옥을 찾아가서 갇혀 있는 베드로를 풀어주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하늘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도 마땅히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순결하고 청초한 모양과 섬세하고 부드러운 향으로 주변을 밝고 향기롭게 해주는 옥잠화처럼 중보기도의 작은 봉사로 주님의 사랑의 향기를 퍼뜨리는 삶을 살고 싶다. 옥잠화가 피는 계절에 갖는 한 줄기 소원이다. 🌸



권영순 님(kwonyun8415@syu.ac.kr) | 목회학 박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의 행복과 자연을 소재로 글쓰기를 즐긴다. 번역서로 '부정적인 세상 속의 긍정적인 교회', 「하나님을 만나는 빨간자카,가 있다.

나이 들어감 & 항노화

Aging & Anti-aging Process



세월이 살 같다. 살아온 날을 돌아보니 지난 60여 년의 세월이 참 빨리도 흘러갔다. 그리고 앞을 내다보니 종착역이 눈앞으로 다가섰다. 어려운 세월이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잠을 설치며 미래에 대한 부푼 꿈으로 뒤척이며 날을 새기도 했다. 그런데 달려갈 길을 거의 달린 후, 이제는 설레는 것이 없다. 100년의 세월을 넘게 산 연세대 교수였던 김형석님은 60~70대가 인생의 황금기라 했는데 그분은 좀 예외가 아닌가 한다. 누구는 세상을 떠나기 전, 일몰할 때 태양이 저녁노을을 붉게 물들이듯 아름답게 산화하고 싶다는 말을 남겼다. 말은 그렇게 했어도 실제로는 조용히 사라져 갔다.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져간다.

나이가 들면 몸의 유연성이 사라지고 생각도 굳어져서 경직되기가 쉽다. 그래서 고집이 세지고 아집이 강해진다. 다른 말로 하면 끈대가 된다. 모든 일에 자신이 경험했던 것이 최우선이고 자기 방식이 옳으며 매사에 가르치려 드는 자세를 취하는 사람이 바로 끈대다. 가끔 배우는 자세도 취하지만 그것은 자기주장을 내세우기 전에 잠깐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것뿐이다. 나이 들

어서 존경받는 일곱 가지 비법에 “입은 닫고 지갑은 열러”가 있다. 지갑을 열고 입도 열면 주위에 몇 명의 사람이 남을 수 있지만, “지갑은 닫고 입만 열면” 곁에 아무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소리만 높이면 아무도 그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나이 들어감에 따라 기억력이 떨어짐을 느낀다. 어떤 사람의 얼굴은 또렷이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 도무지 생각나지 않는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그 사람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으면 아내에게 묻기도 하고 네이버나 구글의 도움을 받아 기억하기도 한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기억력에 자신감을 잃는다. 주위에 그런 분이 있어 웃어넘기고는 ‘나는 다를 거야’ 했는데 필자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에 당황스럽다. “세월에 장사가 없다”는 말은 잘 알았지만, 늘 나 자신은 예외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나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젊은 날의 마크타이슨이 머리가 하얘지고, 팔팔하던 무하마드 알리가 파킨슨병에 걸려 손과 발을 떠는 모습을 보고 흐르는 세월이 무섭지 않았던가.

나이가 들수록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으리라 다짐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다. 아들을 만날 때마다 우람한 발과 가슴과 어깨의 근육을

보면 나 자신과 대비가 된다. 다리와 손과 몸의 근육들이 조금씩 사라지니 아내는 근육 손실을 막기 위해 근육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샤워할 때 내 몸을 보면 기관이다. 배는 나왔지, 근육 없이 앙상하게 마른 나 자신을 보면 “웬 노인네...” 하면서 실소한다. 나 자신이나 같지가 않다. 그럼, 저 거울에 비친 저 늙은이는 누구인가. 머리는 하얗지, 주름은 짜글짜글하지. 마치 귀 하나 잘린 자화상을 그린 빈센트 반 고흐의 모습이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시 90:9, 10). 시편 기자 모세도 인생이 신속히 날아간다고 말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건진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한다. 가수 김국환은 ‘타타타’라는 가요에서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라고 노래했다. 아랍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살아온 세월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창 47:9)다고 말한다. 이 땅에 머무는 시간들이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라는 말이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 한지라”(왕상 1:1). 골리앗을 물리친 젊고 용맹했던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렸지만 젊은 날의 실수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반기를 들고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는 쓰라린 경험을 했다. 압살롬이 그랬고 다른 아들 암논이 근친상간을 일으켜 다윗의 가슴을 후볐다.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왕권 탈취의 반란을 모의했을 때 솔로몬을 세워 왕위를 양위한 후의 다윗의 퇴장은 젊은 날의 영광과 대비된다. 다윗도 평생 살아가며 이 땅에서 수고와 슬픔을

맛보았다. 다윗이 나이 들어 기력이 많이 쇠해진 모습은 미래의 우리들의 모습이다.

세월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순리에 따라 살기 보다는 요즘은 수명을 연장하고 남은 세월도 건강하게 살려는 적극적인 모습들이 보인다. 운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음식도 항노화 식품을 찾아가며 꾸준히 먹는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으려고 사방에 자기 사람들을 보내어 구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간 일들이 요즘은 의학과 과학의 힘을 통해 다시 시도되고 있으니, 불사불멸의 노력이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처럼 반복되고 있다.

나이가 들어도 독립해 살 수 있으려면 자립을 연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음식도 만들어 먹을 수 있어야 하고 어느 정도 일정한 수입도 있어야 하며 자기 자신의 몸을 움직여 가사 일도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스케줄을 세워 활동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흘러가는 물에 몸을 맡기듯 내버려두면 자립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면 종착역은 요양원이다. 그러니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하지 않으려면 몸을 움직여야 한다. 루게릭병은 이 병에 걸린 사람을 근육이 소멸되어 몸을 전혀 움직일 수가 없게 하고 결국은 심장까지 멈추게 한다. 우리 모두는 정신적인 루게릭병을 떨치기 위해서라도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시 90:12). 🌱



구철승 님(davidkoo3605@naver.com) |

삼육대학교 신학과, AIAS 목회학 석사
전) 삼육외국어학원 8개 분원장 및 부속교회
담임목사, 은퇴 후 키프로스 선교사



우유와 달걀을 포함해 동물성 식품을 전혀 먹지 않는 완전 채식주의자인 비건(vegan)들에게 가장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는 동물성 식품에만 들어 있는 비타민 B¹²라고 한다. 왜냐하면 비타민 B¹²는 동물의 몸속에 사는 미생물에 의해 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사람의 소화기관은 구강-위-소장-대장-항문으로 연결된다. 비타민 B¹²는 소장에서 흡수되는데, 합성은 대장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 일어난다. 그래서 사람은 비타민 B¹²가 합성되더라도 체내로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식품을 통해서 섭취해야 한다. 위 절제수술을 받은 사람들도 비타민 B¹² 결핍증이 생길 수 있는데, 비타민 B¹²가 흡수되기 위해서는 위 점막에서 분비되는 내인성 인자(intrinsic factor)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위 절제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비타민 B¹²를 식품으로 흡수할 수 없으므로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

아야 한다.

비타민 B¹²는 적혈구·신경·단백질·DNA의 합성에 관여해 피를 만들고, 신경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 비타민 B¹²가 결핍되면 빈혈과 신경계 장애가 생겨 피부 감각이 떨어지고, 손발이 저리고, 정교한 운동을 하지 못한다. 집중력 감소, 기억 상실, 치매 등의 정신 질환도 나타난다. 신경 장애는 비타민 B¹²를 보충해도 치유되지 않고 영구적인 신경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비타민 B¹²가 결핍된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란 아기들은 빈혈, 척수 퇴화, 지능 발달 장애 등을 보인다.

동물성이 아니면서 비타민 B¹²를 공급할 수 있는 식품이 있다. 해조류와 발효식품이다. 2010년 영국 남성 88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건들은 비타민 B¹²의 농도가 낮았다. 그러나 된장, 김치 같은 발효식품과 김, 미역 같은 해조류를 많이 먹는 한

국민들은 비타민 B¹² 부족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해조류는 공생하는 박테리아에 의해 비타민 B¹²가 합성되고, 발효식품은 미생물의 분해로 비타민 B¹² 외에도 여러 영양소를 합성해 발효 이전에 비해 영양가가 높다.

발효식품은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잘 보관해야 하며, 정성이 필요하다. 우리 선조들은 해가 뜨면 장독의 뚜껑을 열어 놓고, 해가 지면 장독 뚜껑을 덮어 잡균의 증식을 막았다. 또 먼지를 흡착시키고 불같이 장맛이 일어나라는 뜻으로 숯을 넣었다. 김치는 잡균이 증식하지 못하도록 배추가 공기에 노출되지 않게 꼭꼭 눌러 담고, 국물을 충분히 붓고, 김치 발효에 적합한 온도인 -2°C~0°C의 온도를 유지한다.

발효식품은 미생물에 의한 발효 과정에서 맛과 영양이 변한다. 비타민 B¹, B², B⁶, B¹², 니코틴산, 비오틴, 이노시톨, 엽산, 비타민 K, 비타민 E 등과 소화효소를 생성한다.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소화와 흡수가 잘 된다. 철분과 칼슘의 흡수율도 증가한다. 발효식품은 면역력, 장과 뼈 건강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너무 짜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발효 과정이 달라 발효식품마다 맛과 영양에 차이가 있다. 김치와 된장, 낫또와 미소(일본), 텀페(인도네시아), 독일의 양배추 발효식품인 사우어크라우트(Sauerkraut) 등 다양한 발효식품을 먹어서 서로 다른 영양소와 유산균을

섭취하면 좋다.

채식만으로는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채식을 지혜롭게 하면 된다. 채소를 발효시키고, 조리했을 때 맛과 영양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우리 조상들은 콩을 생것으로 먹지 않고, 볶거나 삶아서 먹었다. 생콩은 렉틴(lectin)을 포함하고 있어서 소화불량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나, 고열에서 조리하면 렉틴이 사라져 콩을 문제없이 먹을 수 있다.



성경에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사 5:8)”라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생물의 도움도 받아야 한다. 미생물이 만들어 주는 비타민 B¹²가 없으면 사람은 살 수 없다. 비건들은 식사에 미생물의 선물인 발효식품과 김, 미역 같은 해조류를 포함할 것을 권하는 바이다. 🌱



김명원 님(mwonk@hanmail.net) |
의사. 뉴본여성의원 원장

순종의 순간



봉태균 님(bbong@cccsda.org) |

물음표 목사
현재 미국 중가주합회 프레즈노
올네이션 교회를 섬기고 있다.

인생은 순간의 연속

한 사람의 인생은 살아온 시간으로 측정되지 않고 순간으로 측정된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흔히 한 해, 한 달, 한 주, 심지어 하루를 전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 해, 그달, 그 주, 그날의 특정한 순간들은 기억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삶의 전체를 기억하기보다는 순간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이라면, 그 순간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귀중한 순간이 된다.

말씀에 순종한 두 사람

아합왕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바알 종교를 퍼뜨려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어두운 시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등장한다. 그는 아합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 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왕상 17:1). 엘리야는 비와 풍요를 주관하는 것이 바알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를 아합에게 전했다. 그 후 엘리야의 말대로 가뭄이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 엘리야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릿 시냇가에 숨겨 돌보셨다(3절).

그러던 중, 얼마 후에 그릿 시내가 마르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하신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과부를 통해 그가 도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7~9절). 그러나 문제는 그 당시 시돈 땅이 이세벨의 부친 시돈 왕 엷바알이 다스리는 지역으로, 바알 신앙의 본거지였다



는 점이다. 또한, 경제적으로 비천한 과부, 더 나아가 이방인에게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도망자 신분이었고 까마귀가 가져다주

는 음식을 먹으며 겨우 삶을 지탱하던 엘리야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불평도 없이 그대로 순종한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자신의 안전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우리 눈에는 부족하고 어려운 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게 되면 엘리야가 경험한 참된 안전이 우리에게도 제공될 것이다. 순종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순간을 갖게 한다.


엘리야는 시돈 땅에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 도움을 얻게 된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운 이유는 그 과부 또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점이다. 사르밧 과부도 엘리야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녀는 배고픔에 시달리는 아들과 함께 있었고, 가진 것이라곤 겨우 가루 한 움큼뿐이었다. 그녀는 나뭇가지를 주워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엔 굶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 그녀에게 “네 손의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왕상 17:11)라고 무리한 요청을 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엘렌 화잇 여사가 이 사르밧 과부에 대해 남긴 기록이다. “그(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길에 비추이는 모든 빛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선지자와 왕,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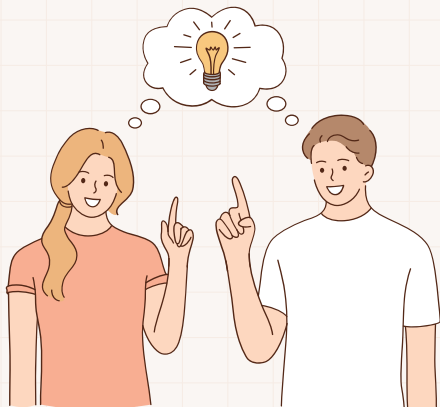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종종 엘리야가 요청한 떡 한 조각이나 마지막 가루 한 움큼에만 집중한다. “왜 엘리야가 그것을 요청했을까?” 혹은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것은 아닐까?”라고 질문할 때가 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사르밧 과부는 바알 신앙의 본거지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녀는 빛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요청을 들었을 때, 그것은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과 같은 순종의 순간이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두 사람의 순종이 같은 종류의 순종이라는 것이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빛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순종의 결과

순종의 결과로 사르밧 과부는 큰 축복을 받게 된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니”(왕상 17:15). 여기서 ‘여러 날’은 단순히 며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을 가리킨다. 그들은 비가 다시 내릴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을 충분히 공급받았으며, 그 기간은 적어도 2년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 결과, 과부와 그녀의 가족도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만약 그 순간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빛을 따르기를 거절했다면, 그녀에게 주어질 축복은 없었을 것이다. 또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안전이 허락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역지사지 대화법

어느 날 공자의 제자 자공이 스승에게 물었다. “한마디 말로 평생토록 실천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자 공자가 대답했다. “그것은 서(恕)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않아야 하느니라.” 서(恕)는 용서하다, 어질다, 인자하다는 뜻. 뜻을 가득 담고 있는 단어다. 한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갈을 여(如)와 마음 심(心)으로 이뤄져 있다. 즉, 마음을 같이 한다는 뜻이다. 배려, 공감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말과도 통한다. 성경에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눅 6:31)고 실려 있다. 이를 대화 상황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남에게 대접받는 말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는 말을 하라.”

대화에서 부당하게 대우받고 싶은 사람은 없다. 막말, 험한 말, 욕설, 모욕적인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혹시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은가 점검해 보자. ① 지위가 높다고 고압적으로 말하기 ② 지식을 자랑하며 가르치려 들기 ③ 자신을 내세우며 교만하게 말하기 ④ 언변을 내세우며 말할 기회를 독점하기 ⑤ 오만에

빠져 상대의 말 무시하기. 주변 사람을 떠올리기에 앞서 나의 말을 돌아보면 새삼 부끄러운 순간이 누구나 떠오를 것이다. 상대를 배려하고, 공감하는 말을 실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갈등 상황에서, 혹은 위기의 순간에서 역지사지의 말은 더욱 빛을 발한다.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삼상 25:13)

다윗이 단단히 화가 났다. 분노의 말이 쏟아져 나왔을 것이다. 나발의 양과 염소를 들판에서 안전하게 지켜줬건만, 감사는커녕 도리어 모욕적인 말을 들었으니 그럴 만하다. “다윗이 누구야? 이새의 아들이 누구야?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왜 먹을 것을 줘?” 나발의 말은 듣기만 해도 참 알밋다. 양털을 깎는 시기는 농사로 치면 추수철로, 외부인 누구든지 환대하고 잔치를 베푸는 때라는데, 인정도 없고, 사람 대하는 지혜도 없는, 성경의 표현 그대로 ‘완고한 사람’이다. 다윗이 부하 400명을 데리고 나발을 치러 나섰으니 큰일 났다. 한 남자도 남김없이 전멸시키겠다는 기세다. 나발의 하인이 이 소식을 듣고 황급히 뛰어갔다.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아내 아버가일에게로 말이다.

위기를 마주한 아버가일은 무엇부터 했을까? 먼저 다윗과 부하들에게 필요한 식량을 풍성하게 준비했다. 떡 이백 덩이, 포도주 두 가죽 부대, 요리한 양 다섯 마리, 복은 곡식, 건포도, 무화과 등을 나귀에 가득 싣고 곧장 달려갔다. 다윗 앞에 도착한 아버가일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렇게 말한다.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삼상 25:24). 처음 만난 다윗을 향해 '선생님'이라고 존칭하며, 잘못에 대한 용서부터 정중하게 구한다. 예언의 신 『부조와 선지자』에는 마치 왕관을 쓴 군주에게 말하는 것과 같은 존경의 표현이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본격적인 설득에 들어간다.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십시오.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한 제 불찰입니다. 선생님의 손으로 피를 흘려 보복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져온 풍성한 식량을 받으시고 부디 노여움을 푸십시오. 선생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셔야 할 분입니다. 장차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셨을 때 무죄한 피를 흘리거나 보복한 일로 슬퍼할 일도, 마음에 걸리는 일도 없으실 겁니다."

아버가일의 말은 참 지혜롭다. 오늘날 현명한 커뮤니케이션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대화법을 어떻게 그리 잘 구사하는지 놀랍다. 갈등 상황에서 말을 이어갈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아니,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No because 화법'이다. 상대의 말과 태도에 노(아니다)라는 말부터 들이밀면, 상대는 부정이나 공격을 당했다고 생각해 갈등이 더 증폭된다. 반면, "그러셨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 많이 상하셨겠네요. 그런데..."라고 말을 이어가는 'Yes but 화

법'이 있다. 상대의 분노를 먼저 헤아리고, 내가 아닌 상대 관점에서 이유를 설명하며 은근히 상대가 해야 할 일로 마음을 돌리게 하는 말. 아버가일의 현명한 대화법은 다윗의 복수를 멈추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브레이크가 되었다. "이 말들은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의 입술에서만 나올 수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여인의 마음에 거하고 계셨다. 은혜가 깃들고 친절과 평화로 가득 찬 그의 말은 하늘의 감화를 끼쳤다"(부조와 선지자, 667).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여인의 말은 달랐다. 얼굴과 행동의 비언어적인 요소에도 진심을 담았고, 결국 칼과 창이 아닌 언어로 큰 화를 막아냈다.

'인생 자체가 협상'이라는 말이 있다. 사는 내내 협상의 연속이다. 서로 다른 취향과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 모였으니 입장 차이는 당연하다. 게다가 사람에게는 누구나 인정 욕구가 있다. 내 입장을 내가 먼저 더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 그렇다면 인정 욕구가 충돌해 대화가 흘러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상대 위치에서 한 번쯤 생각하며 말하고, 나아가 상대에게 말할 기회를 더 주는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가 듣고 싶은, 꼭 필요한 말의 빈도를 늘려보자. 대접받고 싶은 말과 태도로 상대를 대하는 거다.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더해주며 대화를 이어 나가는 것. 덧셈의 법칙으로 이뤄진 역지사지의 말은 현명한 대화의 시작이다. 🍀



김여진 님(anchorkim@gmail.com) |
아나운서, 대학교수, 사회공헌 플랫폼 '허스 피치' 대표, 뉴스 앵커에서 삶의 앵커로 제2의 인생을 사는 재림교인



바삭바삭 김 과자!



2인분

30분

바삭바삭 김 과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반찬이 없을 때 '이것' 하나면 밥 한 그릇 딱딱! 정답은 '김'입니다. 김은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소가 가득하며, 칼로리도 낮아 다이어트 간식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김을 가지고 깨, 견과류를 더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좋아하는 김 과자를 아이와 함께 만들어 볼까요?

준비재료

재료 마른 생김 10장, 깨, 들깨, 아몬드 슬라이스

소스 재료 간장 2t, 물엿 5t(꿀, 올리고당으로 대체 가능), 물 3t, 소금 한 꼬집

만들어 볼까요

- ① 소스 재료를 냄비에 넣고 약불로 끓여 졸여줍니다.
- ② 마른 생김 위에 식혀둔 소스를 실리콘 붓으로 골고루 잘 발라줍니다.
- ③ 그 위에 통깨를 골고루 뿌려 주고 김을 한 겹 더 붙여줍니다.
- ④ 예열된 오븐에 150도로 5분간 구워줍니다. 오븐의 사양에 따라 바삭거릴 정도로만 구워줍니다(오븐이 없는 경우 프라이팬에 약불로, 앞뒤로 구워줍니다).
- ⑤ 김을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주면 완성!

응용하기

1. 통깨와 함께 들깨, 아몬드 슬라이스를 김 사이에 넣어주면 더 고소한 맛이 납니다.
2. 어른들은 소스를 만들 때 고춧가루 1t 또는 고추냉이 가루 1t을 넣어주면 두 가지 매콤한 맛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계량스푼 정리!!

1T = 15ml, 1큰술, 1테이블스푼

1t = 5ml, 1작은술, 1티스푼 (즉, 1T = 3t)

1C = 200ml 종이컵 1컵



유선 (tjs20323@hanmail.net)

로푸드(Raw food)요리지도사1급, 아동요리지도사2급, 엘리스코헨레벨1,2, 한방약선조리사, 한약초관리사, 꽃케익마스터1급 과정을 이수했으며 요리에 진심인 건강한 채식을 연구하고있는 연구가





한국선교 120주년 기념 연재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으로 보내셨다(9)

서울에서

최초의 여선교사 미미 샤펜버그

미미 샤펜버그 언니는 1906년 말 스물세 번째 생일이 며칠 지나지 않아 한국으로 갔다. 언니가 부르심을 받기 전날 밤, 주님은 이상을 보이셨다. 언니는 그 경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의 사람들이 건너편 물줄기 위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손을 뻗으며 나에게 오라고 손짓했다. 다음 날 아침 나를 한국으로 가는 선교사로 초청하는 대 총회의 편지를 받았다. 즉시 나는 그 꿈과 내가 방금 받은 편지의 관계를 알아차렸다. 하지만 한국이라니!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들어본 적조차 없었다. 지도에서 그 나라를 찾아봤더니 바다 건너편에 있었다!”

한국에 관한 책을 읽기 위해 위스콘신 오쉬코쉬에 있는 공공 도서관으로 서둘러 가서, 언니는 길고 하얀색에 늘어진 의복, 그리고 우뚝 솟은

모자를 착용한 사람들의 삽화가 들어있는 책들을 찾아냈다. 사진에는 꿈에 봤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찍혀 있었다.

“마음속에 조그만 의심조차 없었다.” 미미 언니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한국에서 일하도록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돌아가도록 나를 부르셨다는 것 또한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다시 한국으로

아이들과 나는 임시로 캐나다의 태평양 기선 회사의 여객선인 ‘엠프레스 오브 러시아’(Empress of Russia)를 예약했다. 밀워키의 연방 공무원들은 내 비자 발급 신청을 두고 망설였다. “지금 어디 나라로 간다고요?” 한 사람이 소리쳤다. “한국이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진 나라라는 걸 모르십니까?” 공무원이 물었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무일푼이 되어 국무부에 부담을 줄 것이며, 국가의 비용으로 나를 데려와

야만 할 것이라고 염려했다. 머리를 가로저으며 첫 번째 말했던 남자가 물었다. “당신같이 젊은 여자가 어떻게 어린 두 딸을 데리고 한국 같은 곳에 갈 수 있겠소? 당신 자녀들의 교육 문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그는 좀 더 부드럽게 물었다. “당신의 결정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더듬거리며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목적인 남편이 시작한 사업을 완수하는 것이고, 제철일 안식일예수재림교 대총회에서 나에 대한 지원과 운송을 책임질 것이라고 그를 설득했다.

주어진 기한 안에 여권과 필요한 서류들이 접수되었다. 11월 말에 나와 아이들은 기차로 밀워키를 떠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밴쿠버로 갔다. 어린 딸들은 침대에서 뒹굴더니 금세 잠들었다.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지구 반 바퀴를 돌아가는 여행에 대한 부담은 내 마음을 무겁게 했다. 남편이 그리웠다. 그는 언제나 여행과 관계된 사소한 일까지 챙겼다. 이제 그 모든 책임이 나에게 돌아왔다.

미네소타주의 세인트 폴에서 기차를 갈아타던 아침에 “어디로 가시나요?”라고 묻는 상냥한 젊은 여인을 만났다. “한국으로 돌아가려고요.” 내가 대답했다. “당신의 수하물을 보고 외국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물어봤던 거예요.”

잠시 후 여인이는 말했다. “나도 역시 한국으로 가고 있어요. 나는 감리교단 소속으로, 선교 사업의 첫 번째 임기를 위해 가는 중이지요.”

다음날 영국에서 한국으로 두 번째 선교 임기를 위해 돌아가는 한 여성 구세군 사관이 기차

에 탔다. 나는 주님께서 이 교제를 마련하셨다고 믿는다. 우리는 서로 방문해 경험담을 나누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북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여행은 파란만장했다. 파도가 높이 치고 배의 갑판까지 넘실거렸다. 여행용 가방들과 수하물이 선실 안에서 미끄러져 움직일 때 나는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난간을 붙들었고, 아이들은 폭풍우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위층 침대에서 놀았다.

2주일 후, 배가 요코하마에 정박했고, 우리는 트랩으로 내려와 폭풍우 속의 여행에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기도를 드렸다.

서울에서

1919년 12월 12일 밤, 우리는 서울에 도착했다. 남편을 장례 지낸 지 6개월, 그리고 휴가를 떠난 지 18개월 만이었다.

미미 언니와 함께 한밤중까지 걸으면서, 함께 살기 위한 계획을 짰다. 언니는 선교사 사택 3층에 방을 배정받아, 한동안 우리와 함께 머물렀다.

집을 구하는 것만이 해야 할 일의 전부는 아니었다. 남편이 하던 사업을 잇고자 하는 열망으로 나는 전업 선교사가 되었다. 나에게서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두 가지 역할을 다하기 위해 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만 했다. 우선 내가 일하는 동안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믿음만한 여성 도우미를 찾았다.

언니는 심오한 그리스도인 체험을 즐겼고, 무거운 책임을 지는 동안 각각각색의 장애물 때문에 고군분투했다. 사랑하는 언니와 재회한 기쁨

은 언니의 건강 악화로 인해 깨졌다.

1월과 2월 두 달 동안 나는 교사의 도움을 받아 한국어와 성경 강의 준비에 다시 매진했다. 이른 봄 서울에서 여성 한국인이며 성경 교사인 오홀다와 함께 일을 시작했다. 무더위 혹은 강추위 속에서 우리는 함께 걸으며, 여성들을 초청하고 복음에 흥미를 보이는 사람들을 가르쳤다. 우리는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집도 방문하고, 작은 진흙 벽에 짚으로 지붕을 얹은 가난한 집에도 찾아갔다.

여인들과 함께 바닥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감동적인 경험이었다. 우리는 윤 여사의 집에서 몇 주간 만났다. 윤 여사는 영국에서 열린 구세군 기관 총회에 참석할 만큼 영향력 있는 전직 관리였다. 12명의 여자가 함께 공부했다. 마음과 정신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주님의 모본을 따라 모두가 침례를 받았다.

E. J. 어큘하트 목사님과 그의 가족이 서울로 왔을 때, 학령기의 여섯 명의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운영하려는 계획이 마련되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등한시하지 않은 것은 매우 바람직스러운 일이었다.

내가 결핵 환자가 되다니

몸에서 열이 오르고 기침이 끊이지 않던 어느 여름, 내 인생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내가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떠나기 전에 의사는 “당신의 폐는 종소리처럼 깨끗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다른 의사는 “폐결핵의 징후가 있군요”라고 말했다.

“폐결핵!” 나는 울부짖었다. “폐결핵이라니!”

내 인생에서 이보다 더 두려움을 느낀 적이 없었다.

“내가 남편처럼 쓰러지면 부모 없는 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눈물이 흘렀다.

“내가 대회(선교본부)의 기대에 어긋나게 될까? 그들이 나를 집으로 보내려고 할까?” 나는 울면서 기도했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한국에 남아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동안 나는 다시 한 번 내 일생을 주님께 바쳤고, 남편을 앓아간 이 완수를 이기고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남동생의 방문

동료 선교사들은 대부분 인정이 있었다. 세 개의 집에 네 가정의 복적거려야 할 만큼 주거환경은 열악했다. 위원회는 우리를 위해 침실이 딸린 새집을 짓기로 했다. 이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다. 새집에는 나뿐만 아니라 사생활이 좀 더 필요한 언니를 위한 안락한 숙소가 있었다.

함께 살려고 했던 우리의 계획은 예상했던 대로 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 동양의 스프루와 아메바성 이질로 고생하던 미미 언니는 특별한 식이요법을 하는 중이었다. 아이들과 나는 좀 더 영양가 있는 식사가 필요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폐결핵과 싸워 이기고, 너무나도 소중한 사업을 위해 남을 수 있었다. 내가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할 때에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때때로 나는 내 손을 주님의

손 위에 포갠 것처럼 그분을 친밀하게 생각했다.

그 해를 마치면서 내 남동생 윌리엄 A. 샤펜버그와 그의 아내 캐서린이 상하이로 가는 길에 잠시 방문하기 위해 서울에 들렀다. 이런 특별한 방문은 우리를 기쁘게 했다.

3.1 운동

1919년은 한국 역사에서 기념할 만한 해이다. 1월 20일에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고종이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다. 그의 죽음에 대한 소문은 삼시간에 퍼져나갔다. 3월 3일을 국장(國葬) 치르는 날로 잡았다.

장례식 6주 전 사람들은 대규모 시위를 비밀리에 조직했다. 3월 1일, 20만 명의 한국인들이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다. 그들은 10년간 일본의 통치를 받아왔고, 바로 이 기회에 독립에 대한 그들의 갈망을 전 세계에 알렸다.

태극기를 들고 “대한 독립 만세!”라고 외치는 군중들 사이에 일본 군대가 투입되었다. 수천 명의 애국자들은 체포되고, 매질당하고, 고문당하고, 또 죽임을 당했다. 그 시기는 소동과 혼란의 시기였다.

한국에 도착한 지 열 달 후인 1910년 8월, 일본의 합병으로 한국은 주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일본인들이 모든 공직을 차지하자, 한국인들의 분노가 커졌다. 전국 13개의 도지사 중에 한국인은 단 한 명이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다.


황제의 사위인 박응호에게는 이규원이라는 우수한 경호원이 있었다. 하루는 박응호가 인력

거에 앉았다가 이규원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는 것을 보았다. “여봐라, 네가 밤낮으로 계속 인력거를 끄는 것은 무리일 것 같구나. 내가 관청에 판사같은 자리 하나 알아 봐주면 어떻겠느냐?”

이규원이 대답했다. “만일 제가 수백 명 판사 중 하나가 된다면 그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제가 공직에 들어간다면 차라리 도지사가 되는 것이 낫겠습니다. 한낱 판사 따위는 관심 없습니다.”

이 황제의 사위는 이 대답을 속고했다. 이규원의 성품이 훌륭하고 매우 유능한 인물인 것을 알았기에 박응호는 그를 적극 추천했고 결국 그는 강원도지사로 낙점되었다. 16년간 그는 도청 소재지인 춘천에서 살았다. 그리고 나서 그는 북쪽에 있는 도에 도지사로 전근 가 7년간을 봉사했다.

춘천에서 살던 어느 추운 겨울날, 도지사가 지계를 지고 짐신을 신고는 땀감을 구하러 뒷산에 갔다. 소나무 땀감을 잔뜩 지고 집으로 터벅 터벅 돌아오는 길에 그를 못 알아본 일본 순사를 만났다.

짐을 지고 있던 그를 평범한 막일꾼으로 생각한 순사는 멈춰서 그의 총을 들고 가라고 명령했다. 아무 저항 없이 과거 몇 년간 인력거를 끌었던 그 도지사는 총을 받아 짐 위에 올리고는 계속 길을 갔다. 

김인선 님 옮김

*이 글은 테오도라 왕거린(왕대아) 선교사의 자서전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으로 보내셨다』의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

승리하는 팀에 속할 것인가?



미식축구 시즌이 시작되었다. 32개의 팀이 다섯 달 동안 17경기를 치른 뒤, 플레이 오프를 거쳐 최고의 두 팀이 맞붙는 슈퍼볼로 마무리된다. 모든 이들은 각 팀의 모든 선수가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 경기가 서사적인 대결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 치열한 승자 독식주의의 전투는 현재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두 우주적 “팀”을 떠오르게 한다. 그들이 싸우고 있는 것은 어떤 슈퍼볼 트로피보다 훨씬 더 중대하다. 나는 스포츠 경기를 시청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식축구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이 지상의 슈퍼볼 경쟁을 하나님과 사탄 간의 우주적 영적 전투의 은유로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투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추종자들은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과 선과 악의 승부를 겨루며 목숨을 건 전투를 벌이고 있다.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주적 갈등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14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좌 근처에서 “수호 천사”로 봉사하던 아름다운 천사 루시퍼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정말 훌륭했다! 그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겔 28:12)다고 묘사하고,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15절)라고도 묘사한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과 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했다. “네가 아름다우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우므로 지혜를 더럽혔음이어”(17절).

그의 교만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이기적인 야망으로 커졌고, 마침내 그는 이런 말을 할 지경에 이르렀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못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 도다”(사 14:13, 14).

아름다운 천사 루시퍼는 하나님과 그분의 정부에 반기를 든 사탄이 되었다. 성경은 그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준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찌는 자라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계 12:7~9).

선과 악의 대쟁투는 하늘에서 시작되어 오늘날 이 땅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교전 규칙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사랑과 충성을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분의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선택하기를 바라신다. 그분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기를

갈망하시지만,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신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

반면, 사탄은 우리가 영생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우리가 자신의 죄 된 야망과 행위를 추구하게끔 무엇이든 할 것이다. 불행은 동반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난 이래로 최대한 많은 사람을 자기와 함께 끌어내리는 것이 그의 주된 목표가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 중 한 사람이라도 잃는 것을 아파하시므로 사탄은 가능한 한 우리 중 많은 무리를 차지함으로써 그분을 최대한 괴롭히고자 한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한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벧전 5:8).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 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계 12:12).

전투 준비

성경은 현재 우리도 휘말린 우주적 전투를 이렇게 묘사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엡 6:12). 어떻게 적들을 이길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멋진 답을 제공한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



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라”(엡 6:10~18).

어떻게 끝날 것인가

사탄이 결국 이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압도되거나 좌절할 때마다 성경책의 끝을

읽어보라.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9~10절을 펼쳐라. 말씀은 궁극적인 승리를 예고한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 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 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내년 초, 최고의 미국 프로 축구팀 두 팀이 슈퍼볼에서 경기를 치를 것이다. 사람들이 어느 팀이 이길지 추측은 하겠지만, 어떤 팀이 승리할지 과연 어느 누가 확실히 알 수 있을까? 그러나 선과 악의 위대한 전투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승리할 것을 알고 있다. 남은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과 나는 승리하는 팀에 속해 있을 것인가?

나는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오마르 미란다 님 | 조지아 주 플레인빌에서 사는 자유 기고가
박두일 님(enochpark21@hotmail.com) 옮김

예레미야 애가 1장 고통 그리고 고백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애 1:1).



필자: 임승우 님

(shinact@hanmail.net)
내각교회 담임목사. 2024
년 성기는 내각교회 성도들
을 위해 <하루 한 말씀> 말
씀묵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는

슬프다(히, 애가)로 이 애가(哀歌)는 시작합니다.

슬픈 이유는, 전에는 예루살렘성에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성이 적막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많은 나라 중에 공주였던 성이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처럼 되었기 때문입니다(1절). 전에는 사랑하던 자들이 이제는 위로하지 않기 때문이고, 전에는 친구였던 자들이 이제는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2절). 전에는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 길에 가득했는데 이제는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기에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고 제사장들이 탄식하고 처녀들이 근심하기 때문입니다(4절).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이제 환난과 고통만 남았고 이전의 모든 즐거움은 기억에만 있습니다(6, 7절).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예루살렘성]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한 것이 그 대적들과 원수들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성을 곤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5절).

언제나 고백에는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고통이 하나님한테서 왔다면 희망도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나[예루살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9절)라고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옵소서

희망을 발견한 예레미야는 이제까지의 3인칭 진술에서 돌이켜 12절부터 1인칭 시점으로 노래합니다. 이제 민족의 죄악은 자신의 죄악이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고백과 기도는 민족을 위한 고백과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14절)라고 말하며 자신 곧 자기 민족은 감당할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18절). 의로우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자신이 환난을 당하고 마음이 상하고 자신의 반역이 크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두고 보시지만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20절).

저는 이 모습에서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인류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보시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보았습니다.

기도)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보게 하소서. 🌱

예레미야 애가 2장 **진노와 진노 사이**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시랴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음이여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애 2:1).

주께서

애가 2장은 주의 진노로 시작해서 주의 진노로 마칩니다(1, 22절). 진노의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1절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구름으로 딸 시온을 덮으셨다고 탄식합니다. ‘진노하다’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시는 것을 표현합니다. ‘구름으로 덮으셨다’라는 것은 시온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비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은 하늘에서 땅으로 던져졌습니다. 은혜를 잊은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다시 아름답게 될 수 없습니다.

애가 2장은 1절부터 8절까지 거의 매절에 ‘주께서’ 혹은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결과로 선지자는 슬픔의 눈물을 흘립니다(11절).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음이여”(17절).


주를 향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은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쉬지 않고 주를 향하여 부르짖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18절).

하나님의 진노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노의 심판을 받은 다음에도 하나님께 돌이켜 부르짖으면 회복할 수 있다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주께서는 언약궤는 기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루를 시작하는 초저녁 시간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주려 기진한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는 소리는 들어주십니다(18, 19절).

20절부터 주의 진노가 다시 등장하지만, 노래의 기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여호와께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지”를 보라고 말합니다. 주의 진노를 받는 자들이 누구인지 보라고 주를 향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받고 계시는 십자가 위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진노를 받는 존재가 누구인지 보라고 부르짖는 우리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기도) 주를 향해 부르짖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를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소망이 끊어진 사람

예레미야 애가 3장은 22자의 히브리어 철자가 석 절씩 첫머리에 반복되어 총 6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전과 같은 형식이지만 같은 철자를 세 번씩 사용한 것으로 보아 3장은 애가의 문학적, 신학적 중심이며, 시인이 강조하는 바가 이 3장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의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를 직역하면 “나는 고난 당한 남자이다”입니다. ‘남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게베르’는 전형적인 남성으로 ‘힘센 남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힘센 남자가 “여호와와 분노의 때”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본 장에서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나”라는 표현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백성을 대표해 고난받는 존재로 내어놓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 백성을 위해서, 대신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정도의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징벌을 받았지만 소망이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정도의 징계를 받지 않았으며 소망이 끊어진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말에 신약적 사고를 작동시켜서 ‘예수님’을 대입해 보면 모든 의문이 해결됩니다. 이런 고난을 받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복을 내버린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18절)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둘째 사망이라는 진짜 죽음을 당하셨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돌아오다

고난 당한 남자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19절)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고난을 기억하고 낙심합니다(20절). ‘기억하다’의 히브리어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남자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서 자신의 고난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두었더니(21절) 자신의 고난의 과정이 구원의 과정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고난의 과정’이 ‘낙심의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의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정으로 ‘소망이 끊어졌던 한 남자’로 인해 인류는 비로소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도) 소망이 끊어졌던 한 남자로 인해 생긴 소망을 붙잡게 하소서. 🙏

무궁한 것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절망의 탄식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믿음으로 바뀌는 극적 전환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성벽이 부서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가 폐해지고 황폐함은 끝이 없고 이 형벌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무궁히 베풀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영원하시기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22절). 지금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현재 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연이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역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멸 당하는 것이 공의였습니다. 소망이 끊어져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 이후에 이 땅에 완벽한 교회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신명이 말씀을 퍼서 들이대면 진멸을 피할 모임이나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진멸 당하지 않을 것은 우리 대신 “여호와와 분노의 때”(1절)을 맞아 “소망이 끊어”(18절)진 한 분 때문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지 않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새로운 것

우리가 할 일은 이런 무궁하고 성실한 사랑을 아침마다 새롭게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를 겪음으로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온몸에 새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난을 받는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아침마다, 특히 힘들고 고난을 받을 때는 더,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으면 주님께서 얼마나 성실히 우리를 일일이 돌보고 계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진멸 당하지 않고 숨을 쉬며 사람 노릇하고 사는 것이 전부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와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24절)라고 하게 됩니다.

기도) 오늘도 성실히 베푸실 주님의 무궁한 인자와 긍휼을 이 아침 새롭게 맛보게 하소서. 🙏

선하고 좋은 것

애가 3장 25~27절까지의 석 절은 모두 '선하다', '좋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토브'로 시작합니다. 3장 19절부터 시작된 극적인 마음의 변화는 24절의 '여호와와는 나의 기업이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라는 고백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구절들은 여호와만을 바라고 사모하며 사는 사람의 삶에 일어난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토브'라는 말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 토브는 '여호와와는 선하시다'입니다(25절).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난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점점 더 커지고 깊어지기에, 또 그 고난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보여주시기에 하루의 시작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은 또 어떤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실까? 오늘은 내게 어떤 드라마 같은 일이 생길까?' 하는 기대감이 아침 시간에 가득합니다.

두 번째 토브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26절)입니다. 아직도 한 낮의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기가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고통은 계속되지만, 더 큰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선하심을 맛보았기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토브는 '사람이 젊었을 때에 명예를 메는 것이 좋다'(27절)입니다. 그 사람은 소망의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기 위해 명예를 떼우셨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그에게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는 고난을 받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가르치기 위해 주신 것임을 알기에 그는 잠잠합니다(28절). 자기를 꺾박하는 자에게 뺨을 돌려드립니다(30절).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사람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 곧 토브를 경험한 사람은 그 고통스러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과 공허하심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의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그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기도)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아멘.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살아 먹었도다”(애 4:10).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예레미야 애가 4장은 1장과 2장처럼 ‘슬프다’로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성소의 돌들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 곧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금에 비교 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집인 성소는 무너질 수 없었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신분과 지위는 취소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소가 무너져 돌들이 거리 어귀에서 굴러다니며 순금 같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처럼 되는 가치 하락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1, 2절).

소돔은 고모라와 함께 노아 홍수 이후 처음으로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상에서 사라질 만큼 범죄한 도시였습니다. 소돔과 하나님의 백성은 대조의 대상이라면 몰라도 같은 부류로 묶인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6절)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이렇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 쪽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주동한 자들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즉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에 백성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같은, 백성들이 원하는 일을 하며 이 일을 반대하는 의인들의 피를 흘렸습니다(13절). 백성들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들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지도자들을 따랐습니다.

지도자와 백성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 존재들입니다. 목회자들은 그릇된 신학으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 성도와 교회를 타락시킬 수 있습니다. 교인들도 잘못된 영적 욕구를 가지고 목회자를 타락시킬 수 있습니다. 지도자와 백성, 목회자와 교인들은 한 방향, 곧 우리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런 다음에 서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반대로 되면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욕망을 실현해 줄 하나의 종교적 산물로만 여기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종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18절).

기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

인정과 고백

1~4장과는 다르게, 히브리 철자 순서대로 배열된 형식에서 벗어난 5장은 지금까지의 탄식에서 벗어나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칩니다. 이 기도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우리는’입니다. 이제 선지자는 동족이면서도 원수 같은 존재들이었던 사람들을 ‘우리’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자신과 동족을 함께 묶어 내어놓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와 앞에 나아가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1절)라고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며 있는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7절)라고 고백함으로 자기들 조상들의 죄악을 담당하여 이 모든 죄악의 악순환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15, 16절)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 뉘를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유다 백성의 죄 뉘를 ‘우리’라는 이름으로 인정하고 고백한 선지자는 여호와와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합니다.

간구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19, 20절).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해 보면, 이 간구는 ‘영원히 계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잊거나 버리지는 않으시겠습니까?’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영원히 계시고 보좌에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시면 당신의 백성을 어찌 영원히 잊을 수 있으시겠습니까?’라는 의미입니다. 21절에서 예레미야는 우리를 잊지 않으실 여호와께, 주께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간구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애가를 마치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는,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면 어떤 성품의 소유자이신지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의 애가는 이제 소망의 찬가로 바뀔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에스겔 1장 (1) **찾아오시는 하나님**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밭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겔 1:1)

그밭 강가의 노역 현장에

에스겔은 30세가 되던 해, 여호야긴왕과 함께 사로잡혀온 지 5년이 되던 해(기원전 593년)에 그밭 강가에 있었습니다. 그밭 강가는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사이의 운하였는데 끌려온 유다 포로들은 처음에 이곳에 정착하여 관개 사업장에서 노역하며 살아갔습니다(1, 2절). 이런 상황의 유다 포로들과 에스겔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을까요?

에스겔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부모의 소망이 담긴 이름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는 정말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워 희망의 기별을 주심으로 그들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은 이후 22년간 선지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스겔의 메시지는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 이전의 메시지(1~24장)와 이후의 메시지(25~48장)로 확연히 구분되며 진술도 거의 시간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선지자는 1~24장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며 가혹할 만큼 심하게 죄를 지적합니다. 이후에 에스겔은 25~32장에서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언한 다음에 33~48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종말론적인 성전의 영광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합니다.

움직이는 보좌

아무런 희망이 없는 노역의 현장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모습이 에스겔에게 보였습니다. 그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계셨고 바퀴가 달린 그 보좌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15~21절, 26~28절).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끌려와 이방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움직이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움직이고 계시며 이곳 이방 땅도 통치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다 땅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이 말을 입증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겔 6:7)라는 말씀을 65번이나 반복하며 당신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기도) 저의 수고의 현장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

에스겔 1장 (2) 에스겔은 무엇을 보았나?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겔 1:26).

그룹 천사를 보다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환상이 나타납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초월적 존재를 보게 될 것이고 그 존재가 이 땅의 사건들에 간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은 초월적 존재인 네 얼굴을 가진 네 생물 곧 네 그룹(cherubim: 천사)을 보았습니다. 각 그룹은 네 얼굴과 네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5~13절). 네 얼굴은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얼굴이었는데 이것은 각각 지혜를 가진 인격성, 왕의 주권, 충성과 봉사, 능력과 고상함을 상징한다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네 생물, 네 얼굴, 네 날개에서 넷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사방 전체를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퀴를 보다

네 그룹의 아래쪽에는 바퀴의 형상들이 있었는데 에스겔은 바퀴 안에 바퀴가 또 있고(16절) 그 바퀴에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살피고 계심을 상징하는 눈이 수없이 가득함을 보았습니다(18절). 이 복잡한 바퀴들은 그룹의 날개 아래 있는 손의 지도를 받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것은 인간 사건의 복잡한 일들이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음을 상징합니다. 열국의 분쟁과 소요 가운데서도 그룹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지상의 사건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선지자와 왕, 537).

보좌를 보다

사실 그룹과 바퀴는 보좌를 구성하는 요소들일 뿐입니다. 핵심은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분입니다. 네 생물은 두 날개를 가지고 서로를 향해 연하여 뿔고 다른 두 날개로는 자신들의 몸을 가림으로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에스겔도 곧바로 땅에 엎드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28절).

환상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도 계신다는 사실은 놀라운 위로이기도 하지만, 이 환상에서 ‘불’이라는 상징이 반복되는 것은 5년 후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환상은 그 성의 멸망이 하나님 백성의 끝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의 마지막도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당신의 백성에 대한 뜻을 이루실 것이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겔 6:7) 하실 것입니다.

기도) 우리도 엎드려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

에스겔 2장 **뻔히 보이는 두려움을 직면하려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겔 2:1, 2).

인자야!

하나님께서서는 에스겔을 “인자야”(1절)라고 부르십니다. 인자라는 말은 구약에서 단순히 사람의 아들을 가리키는 경우와 하나님이지면서 또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실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경우(단 7:13), 이 두 가지로 사용되었습니다. 본 절에서는 전자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이는 에스겔서에서 93회 언급되었는데,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 연약한 존재인 인간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 두 의미가 연결되어 인자는 연약한 한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지칭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네 발로 일어서라?

하나님께서서는 1절에서 에스겔에게 “네 발로 일어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성령이 임하여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언뜻 보면, 1절과 2절은 모순된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패역한 백성에게 보내심을 받으려면 꼭 필요한 경험이기도 합니다. 1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려는 순종의 의지를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2절은 순종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이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함께하심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럴 때에 그는 실패가 뻔히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에스겔이 만날 사람들은 패역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입니다(3절). 이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입니다(4절). 선지자가 할 일은 이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5절). 그런 이들이 선지자를 어떻게 대할지는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네 번이나 하십니다(6절). 패역한 사람들에게 두려움 없이 말씀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그런 두려운 상황을 직면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기도) 연약한 우리에게 순종하려는 마음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함께 허락하소서. 🌱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겔 3:1).

먹고 가서 말하라

하나님께서서는 에스겔에게 안팎으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된 두루마리 책을 가리키며 ‘그것을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겔 2:8~3:1). 에스겔이 입을 벌려 그것을 먹자, 그 입에서 달기가 꿀 같았습니다(겔 3:3).

보통의 책은 안에만 적혀 있는데, 안팎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재앙에 관한 말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런 재앙과 애곡이 많이 기록된 것을 먹었는데 어떻게 그 입에서 꿀 같이 달 수 있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선지자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데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이었습니다(4~11절). 전하는 기별은 재앙에 관한 것이고 들어야 할 자들은 듣지 않을 것인데 어떻게 그 전하는 기별이 선지자의 입에서 달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는 것은 말씀을 받는 사람이 그 말씀을 사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한다는 의미는 말씀을 받는 사람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직접 자신에게로 오셔서 두루마리를 먹이는 모습에서, 아무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했을지라도, 어떻게든지 그들을 살려보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파수꾼으로 살아가기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에서 나를 ‘대신하여’는 나를 ‘대비하도록(against)’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스라엘에게 다가올 적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됩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적은 바벨론이지만 진짜 주의하고 살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파수꾼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 간의 팽팽한 긴장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긴장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며 항상 깨어서 파수꾼의 책임을 다하려면, 말씀을 먹는 경향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꿀 같이 단 경험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기도) 주님의 말씀을 매일 먹게 하소서. 🙏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네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겔 4:1).

죄악을 담당하라

하나님께서서는 에스겔에게 침묵 중에, 3막으로 구성된 무언극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각 장면은 ‘가져오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그 명령들은 ‘토판을 가져다가’(1절),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9절) 그리고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겔 5:1) 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에스겔로 하여금 커다란 진흙 벽들을 굽기 위해 준비한 부드러운 진흙 덩어리인 토판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모형을 만들게 하시고, 누가 봐도 그 성이 포위되어 공격을 당하는 모습을 만들도록 명하셨습니다(겔 4:1~3). 거기에는 그 성을 위한 아무런 도움의 모습은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이 친히 공격하시는 듯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왼쪽으로 390일을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고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고 하셨습니다(4~8절). 죄악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었고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했지만, 그 죄악을 담당하는 것은 선지자였습니다.

부정을 감수하라

하나님께서서는 에스겔에게 누워 지내는 동안 사람 똥(인분)으로 불을 피워서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부정한 떡을 만들고 때를 따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9~13절). 이것은 율법이 금하는 일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도 께역하여 부정한 나라들과 하나도 다름이 없음을 보여주는 일종의 행위 예술이었습니다. 에스겔이 곤혹스러워하자, 하나님께서는 인분을 쇠똥으로 대신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14, 15절). 그가 누워 지내는 동안 먹은 음식의 양은 예루살렘 포위 기간 중 이스라엘 백성의 음식 배급의 비참한 상황을 보여주고, 인분 불에 구워 먹으라는 명령은 포로로 잡혀 온 사람들이 바벨론 부정한 땅에서 음식을 먹는 불행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도합 430일 동안, 소량의 음식을 먹으면서 예루살렘 모형 부근에서 누워서 지내야 했습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이 당할 일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선지자가 그들을 위해 죄악을 담당하고 부정함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와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 부정하게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기도) 우리의 몸으로 심판을 경고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

에스겔 5장 **심판의 행간에 드러나는 구원**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겔 5:1).

심판은 이루어진다

무언극 제3막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바벨론 군인들이 쓰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고 하셨습니다(1절). 제사장들은 자기 털을 깎는 일이 금지되었기 때문에(레 21:5) 이 일만으로도 사람들의 시선을 끌 만했을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은 배역한 백성들이 당할 수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스스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그 털들 중 삼분의 일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삼분의 일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삼분의 일은 바람에 흩어지도록 했습니다(2절). 이 일은 재앙의 3종 세트인 전염병, 기근, 칼 곧 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당할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12절). 예루살렘은 불에 던져질 것이고, 여호와께서는 “내 진노가 다한즉 분이 풀렸다는 말씀(13절)처럼 당신의 분노를 끝까지 행하실 것이었습니다.

사랑과 구원도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11절)라며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이는 이 일을 행하는 데에 당신의 삶, 곧 생명을 거셨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배역한 백성에게 진노를 다한즉 분이 풀렸다고 말씀하셨는데(13절), 이 말은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에게 공의의 진노를 다 쏟으신 후에야 비로소 분노를 멈추신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세상 죄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한 대목에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공의가 완전한 사랑이 되었고, 완전한 사랑이 완전한 구원이 되었습니다. 13절의 ‘열심으로’(히, 베킨아티)는 ‘질투’(신 29:20; 슥 1:18), ‘투기’(마 8:6; 겔 16:38, 42) 등으로도 번역되는데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일면을 보여줍니다.

선지자가 자기 몸에 수치를 짊어짐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의 기별을 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삶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함으로 공의와 사랑 그리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기도) 심판과 징계를 받을 때에도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발견하게 하소서. 🙏

에스겔 6장 **결국은 인정하게 된다**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겔 6:7).

결국은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한다

에스겔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2, 3절). 그 이유는 그곳에 있는 산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4절).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믿거나, 계시더라도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으로 생각하고 자기 욕망의 투영체이자 불안의 일시적 위로물인 우상들을 숭배하던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야 그 우상들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사실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7, 10, 13, 14절).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통치에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찬양을 올리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 찬양을 올리는 일이 이 땅을 마지막으로 심판하는 날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보면 심판은 인간을 선악 간에 분별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 우주에 알리는 일임을 알게 됩니다.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안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 교부 중 한 명인 안셀무스는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 증거에 기반을 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고난과 징계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보이지 않는 초월하신 하나님보다 자기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여 고난을 받게 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로 구약에서 많이 언급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이 바로 이러한 징계의 목적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시간도 멈추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거나 고난을 달게 받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이 임하는 인류 최후에 날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 그때 그분의 공의를 인정하며 잃어버린 구원으로 인해 후회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도) 하나님을 오늘 알게 하소서. 🙏

끝났다

에스겔은 6장에 이어 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내릴 심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본 장의 핵심 단어는 “끝났도다”(2절)입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 땅의 사방 곧 온 세상이 끝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교만(10, 24절),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일(14절), 재물과 부를 쫓아다닌 일(19절), 성전을 더럽힌 일(24절)로 인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심판은 재앙의 모습을 가집니다. 5절의 “비상한 재앙”은 유일한 재앙이라는 뜻으로 전무후무한 재앙을 의미합니다. 이런 재앙으로 인해 이스라엘에 끝이 올 것입니다. 에스겔은 6절에서 ‘끝이 왔도다’라는 말을 네 번이나 반복함으로, 이 일이 확실히 일어날 것을 강조합니다.

본 장에서 말하는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과 끝을 의미하지만, 내용상 종말론적인 최종 심판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죽음을 통한 한 개인의 종말과 함께 지구 전체의 종말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 심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이고(4절) 때리시는 것으로(9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있더라도 자신들과 무슨 상관인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9, 27절).

끝을 아는 사람은?

끝을 아는 사람이란 끝 너머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이 세상의 끝 곧 심판 날에 없어질 일시적으로 유효한 가치인지, 혹은 끝을 넘어서는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들인지 살피며 살아야 합니다.

끝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끝내시며 동시에 그 이후의 세상을 새롭게 만드실 분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방해가 되는지 혹은 도움이 되는지를 잘 살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 9:2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전 3:11). 심판 너머의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요 6:27) 일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 끝과 그 끝 너머를 알게 하소서. 🙏

에스겔 8장 하나님을 떠나시게 하는 것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겔 8:6).

질투

에스겔이 처음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을 본 후 1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 환상을 봅니다. 주 여호와와 권능이 선지자에게 내리고 주의 성령께서 그를 포로로 잡혀 있던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옵니다(1, 3절).

에스겔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본 것은 하나님의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었습니다(3, 5절).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출 20:5; 34:14; 신 4:24)이시므로 마땅히 당신께 드러질 경배와 영광을 다른 존재에게 돌아가도록 할 경우 질투하시며 진노하십니다(신 32:16).

사랑의 핵심적인 개념 하나가 배타성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다른 남자를, 아내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듯이, 질투의 하나님은 잘못된 사랑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잘못된 사랑을 불륜 혹은 인륜을 깨뜨린 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런 사랑은 자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랑하는 대상이 자멸하는 모습을 볼 때 방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질투라는 말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 질투는 진노, 징계, 형벌, 심판으로 표현됩니다.

떠나시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는 가증한 일을 크게 행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소를 떠나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어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통치하시고 경배 받으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는 처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언약의 율법을 파기하며 성소를 더럽게 했고 언약의 관계는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 의해 더럽혀진 그 성소를 떠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 백성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도 성전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지구 역사의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문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계 3:20). 그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그 교회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올바르게 하지 못한 채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기도) 주여 함께하여 주소서. 🙏

11.17(일)

마음으로 읽는 성경 ♥
더듬어 찾는 하나님

에스겔 9장 떠나실 때 하시는 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겔 9:4).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실 시간이 임박하자, 여섯 사람이 그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고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기 위해 늦 제단 곁에 서 있습니다(겔 9:1). 이들은 예루살렘을 파멸할 하나님의 군대로 보입니다. 이 모습은 당신의 백성에게 거부당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발생한 하나님의 분노, 슬픔, 안타까움, 좌절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중의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이 먹 그릇을 찻습니다(2절). 본문의 ‘그 중의(히, **베토킴**)’은 문자적인 의미로 ‘그들 가운데 있는 한 사람’입니다. 여섯 명 가운데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으로 그가 입은 옷은 제사장의 의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먹 그릇을 찬 존재를 예수님의 선재하신 모습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늦 제단 곁에 서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먹 그릇 찬 사람에게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4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이 심판이 받을 때, 그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은 구원함을 받을 것입니다.

표를 받은 사람들

살려야 할 자들의 이마에 그린 표는 히브리어 철자의 마지막이자 22번째 글자인 ‘타우’였습니다. 이 표를 받을 이들은 심판의 날에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상징합니다.

이 글자는 고대에서 십자가와 같은 기호를 나타내는 낱말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마에 표를 그리는 일은 출애굽 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 집의 문설주에 발라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 멸망치 않도록 한 사건(출 12:13, 21~29)과, 말세에 하나님께서 당신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므로 열방에서 구원하시는 일(계 7:1~8) 등과 유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는 사건을 통해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참혹한 그들의 모습은 곧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중에서도 그런 일을 보고 탄식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지고 계시며 그들을 특별히 표시하심으로 당신이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기도) 주님의 심판과 구원을 함께 기억하게 하소서. 🙏

성전 문지방에서

가는 베 옷 입은 사람은 에스겔 9장에서 진정으로 통회하는 하나님 백성의 이마에 인을 칩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증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 옷 입은 사람이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서 참된 증보자만이 진정한 심판자가 될 자격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습니다(4절). 모세가 성막을 봉헌할 때 임했던 영광의 그룹이 성전에 가득하고, 여호와와 영화로운 광채가 성전 뜰에 가득했으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보여주었던 이전과는 달리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습니다(4절). 가는 베 옷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에서 불을 가져갑니다(6, 7절). 이것은 예루살렘에 곧 심판이 임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어서 바퀴들에 관한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9~17절). 이 바퀴들은 인간들의 복잡한 세상 역사를 상징합니다.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심판받아 불로 인해 소멸할 지경에 이르렀지만, 역사는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굴러갑니다. 세상 역사를 상징하는 바퀴들은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며 움직입니다(16, 17절).

성전 문지방을

소멸케 하는 진노의 심판을 명한 후에 여호와와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납니다(18절). 이것을 보는 선지자의 마음은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만일 이렇게 끝난다면, 가는 베 옷을 입은 사람은 회개하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40장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장래의 성전과 성읍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당신의 백성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여호와 삼마”라는 성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입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8)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영광의 날에 더욱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 함께하여 주소서. 🙏

여호와의 전 동문

에스겔 8장에서 시작된 에스겔의 두 번째 환상은 오늘 11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읍을 완전히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성전 문지방을 떠나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겔 10:18, 19).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바로 떠나지 못하고 미련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던 여호와의 전 동문에서도 스물다섯 명의 고관들이 불의를 품고 예루살렘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고 있었습니다(겔 11:1, 2).

결국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하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4절). 그분께서는 그들이 당신이 여호와의 인 줄 알도록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5~12절).

머무신 곳

여호와의 영광은 성전 문지방(겔 10:18)에서 성전 동문으로(겔 10:19), 다시 성읍 가운데에서 올라가 성읍 동쪽 산으로(겔 11:23) 단계적으로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서 떠나시는 일을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분명히 떠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는 곳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지만, 눈에 보이는 성소가 없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16절)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며(17절) 그들에게 한마음과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새 영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19, 20절). 이는 성령이 임하시는 백성들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소가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범죄한 자들을 떠날 수밖에 없지만, 예레미야의 말에 따라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에게는 하나님 당신 자신이 그들의 성소가 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영광은 성읍 동쪽에 머물다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떠나신 방향에서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겔 43:1~7). 하나님께서는 심판은 하실지언정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주여, 제 마음과 삶에 머무소서. 🙏

에스겔 12장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겔 12:2).

보지도 듣지도 아니하는 백성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2절)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은 “날이 더디고 모든 목시가 사라지리라”(22절)라고 말하며 선지자 에스겔의 예언을 무시했습니다.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 왔는데 이제 곧 마지막 3차 예루살렘 함락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2차 포로로 끌려오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끌려가지 않았다고 안심했지만, 성이 다시 함락할 때 죽거나 3차 포로로 끌려오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미 두 번이나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는 모습을 보았고 현재 상황도 좋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굳게 닫고서 현실을 제대로 보려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 몸으로

하나님께서서는 보지도 듣지도 않으려는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선지자에게 두 번이나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의 모습을 온 몸으로 보여주는 눈에 띄는 행동을 하게 하셨습니다.(3~7절, 18~20절). 그런데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벨론 땅에서 함께 포로 생활하는 자들 밖에는 보지 못할 터인데, 어떻게 저 멀리 있는 유다 땅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런 온몸으로 보여주는 예언이 전달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에스겔 8장 1절을 보면 유다 장로들이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방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시늉은 했지만, 그 말씀이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그 예언은 더디고 사라질 것이라며 결국은 거부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22절).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자기 생각에 맞는 것만 받아들여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조금이라도 다르게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간다면 오늘 에스겔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심판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기도)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하소서. 🙏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라”(겔 13:2).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1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은 이유 중 큰 것 하나는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거짓 선지자들이 당시 성전과 종교 권력을 장악했기에 거짓을 구분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에스겔 13장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째,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합니다(2절). 그들은 아무것도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3절).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었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연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감히 두려워서라도 거짓 예언을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 거짓 선지자들은 손수 수고도 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고 말함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 보지도 않았고 성벽을 수축하는 일에 참여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 먹을 것만을 찾아다니는 황무지의 여우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4~6절).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자기의 이익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두어 움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듣기 좋은 거짓말을 하는 자들입니다(19절).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2

셋째,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 있다고 말하며 누가 담을 쌓을 때 그들은 그 위에 회칠을 합니다(10, 11절). 당시에 세계 패권은 바벨론에게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는데도 남 유다의 왕, 신하, 백성들 모두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고도 말씀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벨론도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담에 회칠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 없이 임시방편으로 말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서는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목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충실합니다. 그는 끝까지 인내하며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 참된 목자로 살아가길 수 있도록 언제나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게 하소서. 🙏

에스겔 14장 마음에 들인 것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들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응답하라”(겔 14:3).

마음에 들인 것

어느 날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장래에 있을 일과 예루살렘의 운명에 관해 묻고자 에스겔에게 왔습니다(1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여쭙보려고 온 일이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장래 일과 심판에 대해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장래 일을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저 “자기를 위하여” 물으려고 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안위를 위해 왔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들 마음의 중심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마음에 자기 우상을 두고 죄악을 행하면서도 위급한 때에만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는 하나님도 그저 우상들 중의 하나로만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상과 죄악을 품은 채 하나님께 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응답은 오직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을 끊는 것밖에 없었습니다(7, 8절).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어도

여호와께서는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범죄하므로(13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14절, 참고 16, 18, 20절)라고 네 번에 걸쳐 말씀하십니다.

노아, 다니엘, 욥은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의로움을 지켰거나 극도의 환난 중에서 의로움을 지킨 인물들입니다. 즉 에스겔 당사가 그 세 사람이 활동하던 상황들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패악한 상황을 포함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과 각 개인과의 관계에 따른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스겔이 같은 시기에 활동하던 다니엘을 언급한 것은 당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어렵다고 핑계 대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그런 의로운 인물들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며 진정한 중보자는 하나님뿐이고 그들을 구원할 자도 하나님뿐이므로 그분께로 각 개인이 돌아가야 한다는 호소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 제 우상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소서. 

에스겔 15장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라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라”(겔 15:2).

아무 쓸모가 없다

에스겔은 두 가지 징조(겔 12:1~20)와 다섯 개의 메시지(겔 12:21~14:23)를 전한 다음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구원의 가능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비유들을 기술합니다(겔 15~17장). 이 중에서 에스겔 15장은 쓸모없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합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는 이사야 5장과 시편 80편에도 기록되었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언급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가 다른 모든 나무보다 더 나은 점이 무엇인냐고 물으십니다(2절). 포도나무는 온전하여도 가구로 무엇을 제조할 수도 없고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도 없고 그저 불에 던질 떨감이 될 뿐인데,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의 이 포도나무는 불에 그슬려 버려서 정말 아무 쓸데가 없었습니다(3, 4절).

이 비유는 하나님을 배역한 결과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두 차례나 바벨론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인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심판의 불에 던져 살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15:2, 6).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는 목적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 외에는 그리스도인이 일반 사람들보다 더 나은 점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4절)라는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하며(7절),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10절).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12절). 십자가의 사랑으로!(13절)

기도)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소서. 🙏

에스겔 16장 **피투성이라도 살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겔 16:6).

피투성이

에스겔 15장이 이스라엘이 결과적으로 망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16장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원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태생이 자기들이 멸시하는 이방 민족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3절). 이스라엘은 태어나던 날에 들에 버려진 자로서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6절)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옷을 주어 별거벗은 몸을 가리고 언약을 맺어 당신께 속하게 하였고, 화려한 왕관을 씌워 왕후의 지위에 오르게 하셨습니다(8~14절).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그 이스라엘은 자기의 화려함과 명성을 믿고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행음했습니다(15절). 16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행음’, ‘음란’, ‘음녀’들인데 21번이나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어렸을 때 피투성이였던 자신의 본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래 잘난 줄로 알며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했습니다(22절). 이제 왕후였던 여인(13절)이 간음하는 아내가 되었고(32절), 하나님께 음녀라고 불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35절).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삼아주셨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인 모습을 보이고 시기 하며 다투곤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교회 안에서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 도를 넘는 행동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어렸을 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이어가고자 하십니다(60절). 하나님께서는 “네[인간] 언약”이 아닌 “내[주님] 언약”을 세워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십니다(61, 62절).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당신의 백성을 용서하고 구원하신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래부터 얼마나 모자란 족속인 것과, 동시에 이런 존재를 용서하고 돌이키신 이 모든 일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63절).

기도) 오늘도 우리를 위해 피투성이가 되신 한 분을 기억하나이다. 아멘. 🌿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겔 17:24).

살길을 보여주셨는데도

에스겔 17장의 역사적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 유다의 여호야긴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간 후, 바벨론에게 충성하기로 맹세한 시드기야왕이 바벨론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애굽에게 도움을 청함으로 망하게 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맹세한 충성의 언약을 파기한 것을 가리켜서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19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게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왕에게 이스라엘이 항복하는 것만이 그들이 살길이라고 말씀하심으로 바벨론과 맺은 언약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해 따르지 않고 애굽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살길을 스스로 걷어찬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다

17장의 앞의 비유에서는 큰 독수리가 백향목 높은 가지 중 연한 가지 끝을 꺾었습니다(4절).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서는 당신 자신이 직접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새 가지의 연한 가지를 꺾어다가 우뚝 솟은 높은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22절). 여기에 나오는 ‘연한 가지’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며, 23절의 ‘이스라엘의 높은 산’은 시온산을, ‘각종 새’는 세상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므로 망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직접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고 그분은 영원한 나라를 친히 세우실 것입니다. 24절에 등장하는 여섯 단어 곧 ‘낮추다, 높이다, 말리다, 무성하게 하다, 말하다, 이루다’는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묘사합니다.

에스겔 17장은 “나 여호와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24절)라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합니다. 시드기야가 실패한 하나님의 언약을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친히 와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매일을 지금과는 다르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 주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삶을 제게 이루어주소서. 🌱

에스겔 18장 (1) 영혼은 불멸인가?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겔 18:4).

교리 공부?

에스겔 18장 4절은 영혼불멸설을 부정하는 중요 구절로 재림교인들에 의해서 오랜 기간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4절)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충격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맥을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의 ‘영혼’은 혹자가 생각하는 ‘육신과 분리된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한 인간 존재’를 의미합니다. 에스겔 18장의 문맥은 한 사람의 구원과 심판은 다른 누구의 탓이 아니라 본인의 결정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영혼’은 영혼불멸인가 혹은 아닌가 하고 논할 때의 영혼과는 글자상 같아도 의미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문맥 공부?

영혼불멸설에 대한 반증을 위해서는 이 구절보다 오히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마 10:28)라는 말씀이 좀 더 유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몸과 함께 영혼도 분명히 멸절 당한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구절은 ‘몸과 영혼이 분리될 수 있는가?’와 ‘그렇다면 지옥이 있다는 말인가?’에 대한 부가 설명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본 구절의 문맥은 ‘영혼불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본 구절은 하나님께서 한 명의 영혼까지도 얼마나 귀히 보시고 돌보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런 연유로 저는 문맥을 정확히 이해하는 성경 공부를 좋아합니다. 문맥을 도외시한 교리 논쟁은 또 다른 논쟁을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그러나 문맥을 정확히 이해하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 가면,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고 삶의 진정한 변화도 일어나며, 지옥, 영혼불멸설, 심판 등과 같은 기독교의 논쟁적인 핵심 교리에 대해 어렵지 않게 올바른 관점을 확립하게 될 것이고, 애매모호한 한두 성경 구절에 흔들리지 않는 폭이 넓으면서도 견고한 성경적 이해를 가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 말씀을 말씀 그대로 읽게 하소서. 🙏

에스겔 18장 (2) 남 탓하는 사람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됩니까”(겔 18:2).

조상 탓?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을 인용해서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 온 것은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며 조상 탓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십계명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 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출 20:5, 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조상에 의해서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향력에 대한 말씀일 뿐입니다.

성경의 예를 살펴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 자녀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악을 행함으로 질책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선함으로 인해 어떤 잘못을 용서받는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또, 요시아왕의 조상들은 악을 행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선을 행했습니다. 그 조상들의 악행이 그 왕의 선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속담을 들먹이며 조상 탓을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영혼의 개별성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겔 18:4)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영혼의 개별성 즉, 각 영혼이 하나님에 대해 가진 책임성에 대해 언급하는 말입니다.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는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었습니다. 즉 조상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조상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왔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조상들은 죄를 지은 자는 죄를 지은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을 따른 자는 따른 대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범죄했기 때문에 징계를 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31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스스로 돌이키고자 결단을 내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32절).

기도) 선한 결단을 내리게 하소서. 🙏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겔 19:14).

애가를 지어 부르라

본 장은 “애가를 지어 부르라”(1, 2절)라는 말로 시작해서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14절)라는 슬픈 말로 끝맺음 됩니다.

본 장은 사자 비유와 포도나무 비유 등 두 개의 비유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비유에서 암사자는 유다를, 첫 번째 젊은 사자는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상징하며, 두 번째 젊은 사자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가리킨다고 생각됩니다. 두 왕은 이스라엘을 잘 지키고 통치해야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을 삼키고(3, 6절), 그들의 거처를 파괴합니다(7절). 그로 인해 두 왕은 모두 이방으로 끌려갑니다.

둘째 비유인 포도나무의 비유에서는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가지들이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오히려 뛰어난 자를 자랑하다가 꺾이고 말라 불에 타서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10~14절). 에스겔 19장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애가를 지어 불러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고, 다윗 왕가가 불타서 그들을 이룰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없는가?

오늘 우리는 비슷한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매년 혹은 매 회기에 교회와 기관의 지도자들을 뽑지만 우리는 제대로 된 지도자들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무 예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마음에 안 든다 해도 사람들을 삼키거나 교인들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그 지도자들을 욕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먼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소망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실망시키는 많은 젊은 사자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다윗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위에 한 목자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겔 34:23), 그 목자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시온산과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기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에스겔 20장 **우상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겔 20:24).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다시 여호와께 물으려고 에스겔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께 묻기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3, 4절). 그러면서 이미 주님께서 베푸셨던 길고 긴 끈질긴 은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0장은 이스라엘 역사를 네 시기 곧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던 시기(5~9절), 출애굽 하여 광야로 나온 1세대의 시기(10~17절), 광야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간 시기(18~26절), 마지막으로 바벨론에게 정복되어 포로로 붙잡혀 온 세대의 시기(27~31절)로 구분합니다. 말씀 속에서 시기마다 하나의 패턴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1)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은혜, 2) '그러나'로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반역, 3) '그러므로'(개혁 개정에서는 생략)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선포, 4) 다시 '그러나'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당신 이름에 대한 열정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끈질기게 은혜를 베푸셨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가증한 우상에 눈이 끌려서(7, 8절),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가서(16절), 우상을 사모해서(24절)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였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기를 용납하지 않고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31절).

그런데

그런데 심판의 결과가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을 심판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음에도(36절) 다음 세대를 살리신 것처럼, 이번에도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다 당신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40절).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함이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44절).

더는 이스라엘이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으로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원래부터 이루고자 하셨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서 우상을 사모하는 마음을 제거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기도) 제 안의 가증한 우상을 가증스럽다 여기게 하소서. 🙏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지라”(겔 21:3).

대적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과 성소를 향해 예언하라 하시며 그들을 대적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1~3절). 이스라엘이 우상을 사모하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당신 백성이 아니게 된 그들을 칼집에서 빼낸 칼로 심판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21장은 ‘칼’이란 단어를 19회나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날카롭고 빛나는 칼(9절)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이렇게 된 상황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알리기 위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6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재앙을 내리실 때의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죄악과 하나가 된 백성들을 보며 “죄악의 마지막 때”(25, 29절) 곧 더 이상 죄악을 묵과할 수 없는 때가 되었기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지만, 당신 백성들의 딱하고 안타까운 처지를 보며 탄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의인도 심판하시나?

하나님은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지라”(3절)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의인은 그 의로 살고, 악인은 자기의 악으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참 의미는 무엇 일까요?

헨더슨이라는 학자는 이것을 ‘심판의 내면적 작용’이라고 말합니다. 곧 의인과 악인의 심판은 외형상으로는 같으나 그 내면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악인과 함께 심판을 받기는 하나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며(롬 8:28), 그 심판은 악인에게 내리는 것과 같은 가혹한 형벌이 아니라 더 나은 정진을 위한 징계의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심판이 임할 때는 의인과 악인이 외형적으로는 구분하기 어렵다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심판의 재앙이 임할 때 각 개인이 ‘하나님께 어떠한 태도를 가질 것인가가 그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 구분하는 지점이 된다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오늘 재앙을 만나고 있다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 삶에서 주님의 징계를 받아들임으로 죄짓기를 멈추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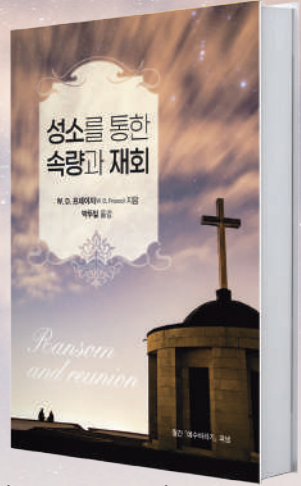
기도) 주님의 칼로 내 죄를 베어 주소서! 🌱

성소를 통한 속량과 재회

Ransom and reunion

개정판 2쇄 출간!!

많은 분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성소를 통한 속량과 재회 Ransom and Reunion』가 재출간 되었습니다. 이 책은 성소문제를 다룬 난해한 논문이나 학술서적이 아닙니다. 풀뿌리 민초들이 읽어 신앙심 북돋고, 예수님 희생에 향한 고마움이 솔솔 피어오를 순한 이야기책입니다. 구속의 오묘와 원대한 기획에 성큼 다가설, '우리들 모두의 구속사'요 나를 위해 쏟으신 놀라운 주님의 희생이 '은혜의 강물'되어 가슴을 적시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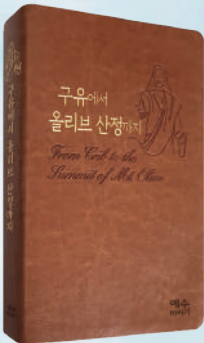
W. D. 프레이지(W. D. Frazee) 지음 / 박두일 옮김 / 정가 10,000원(배송료 3,000원)

이 책을 번역하신 박두일 장로님께서 『예수바라기』에 사랑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속히 서둘러 주문하세요.

주문 : 010-8535-1844(권정행), 010-3624-8344(정금순)

구유에서 올리브 산정까지

From Crrib to the Summit of Mt. Olive



- 크라운판
- 컬러그림 삽입
- 인조 가죽커버
- 수제 스틱치
- 880쪽
- 정가 30,000원(30불)

한 걸음 느린 만남



지치고 힘들고
변함없는 일상에서
인생의 위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신가요?

정금순(복디자이너, 브런치 작가) 지음
정가 15,000원(15불)

구입
문의

한국 010-8535-1844 / 010-3624-8344

미국 213-388-6100 / koreanap@yahoo.com(미주시조사)

☎ (323)854-7259, 805-376-3366

2025년 대쟁투 투어

주관: 영원한복음·예수바라기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기간 14일(2025년 3월 7일~20일, 9월 5일~18일)

장소 이탈리아, 바티칸, 스위스, 독일, 프랑스 각 시대의 대쟁투 현장

목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이 성취된 현장을 방문

여행 가이드 권정행 목사(영원한복음/예수바라기 대표)

비용 4,850,000원, 3,460USD, 3,050EUR(호텔+입장료+육로교통비)
2인 1실 기준이며 항공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약 신청서와 사진, 여권과 사본과 함께 예약금 입금 100만원, 1,000USD, 1,000EUR

문의 권정행: 010-8535-1844 gctours@naver.com 양운중: +1-470-833-2887



상세 안내 및 신청서

여행 일정

- ▶ **1일(금요일 3/7, 9/5): 로마, 도착과 환영** 로마의 Leonardo da Vinci Airport (FCO)에 도착하여 호텔에 이동, 안식일 준비, 환영 및 저녁 식사
- ▶ **2일(안식일 3/8, 9/6): 로마, 초기 기독교 박해 현장** 안식일 학교 및 안식일 예배,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 순교현장 방문. 성 베드로 쇠사슬 대성당, 네로 황제의 저택, 산 클레멘테 성당, 순교기념 원형교회, 대전차 경주장
- ▶ **3일(일요일 3/9, 9/7): 로마, 이교 로마와 로마 시대의 기독교** 콜로세움, 콘스탄티누스 황제(기독교 공인령) 개선문, 티투스 개선문(AD70년, 예루살렘 멸망, 예루살렘 성전의 금촛대 부조), 로마의 유적지 포로로마노, 베드로와 바울이 갇혔던 마메르틴 지하 감옥, 1798년 바티어 장군이 교황권이 끝났음을 선언한 카피톨린 언덕, 초대교회의 지하무덤 카타콤, 사도 바울의 무덤이 있는 성 밖의 바울 대성당, 요한이 기름 가마에 던져졌던 현장에 세워진 예배당
- ▶ **4일(월요일 3/10, 9/8):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 관련 유적과 로마 가톨릭 교회 등장** 바티칸 박물관과 성 베드로 대성당, 1260년의 기간을 끝낸 코르시니 궁전, 성 요한 라테란 대성당(교황의 보좌가 있는 곳), 콘스탄티누스의 침례교회, 마틴 루터가 무료로 올라간 빌라도의 총계, 제수이트 총본산 예수 교회
- ▶ **5일(화요일 3/11, 9/9): 시에나와 라벤나, 교황이 압송될 때 들었던 곳과 이교 로마 종말** 밀비안 다리, 시에나에서 고문(중교재판)박물관, 라벤나로 이동하여 세 볼 가운데 마지막 빨린 동고트 데오데릭 대왕의 영묘
- ▶ **6일(수요일 3/12, 9/10) 라벤나, 카노사, 파르마, 1260년 기간의 시작과 교황권의 지상권** 라벤나에서 유적지 방문: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유명한 모자이크가 있는 산 비탈레 성당,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오래된 침례탕 가운데 하나인 아리안 침례탕, 단테의 무덤, 신정통주의 침례탕, 대주교 박물관, 교황 그레고리 7세가 하인리히 4세 황제를 모욕함으로써 교황의 최고 권력을 드러낸 카투스 성
- ▶ **7일(목요일 3/13, 9/11): 토레 펠리체, 교황권 박해 당시의 하나의 교회(왈덴스인들의 유적지)** 이탈리아 알프스의 토레 펠리

- 체와 밥비오 펠리체로 이동, 왈덴스인들의 박물관 혹은 유적지
- ▶ **8일(금요일 3/14, 9/12): 토레 펠리체, 광야 교회** 채림교회 방문, 프라델토르노에 있는 왈덴스인들의 대학, 왈덴스인들의 역사적인 기념물 상포랑, 백위스 학교, 동굴 교회, 일몰 예배
- ▶ **9일(안식일 3/15, 9/13): 왈덴스 계곡, 왈덴스인들과 남은 자** 손 왈덴스인교회에서 안식일학교 및 예배, 성경 또는 대쟁투 도서, 산책, 일몰예배
- ▶ **10일(일요일 3/16, 9/14): 스위스 제네바, 칼뱅과 프랑스 혁명** 알프스산맥을 가로질러 이태리에서 스위스로 이동, 유럽 최고봉 몽블랑 아래의 티널 통과, 몽블랑 기슭 프랑스 샤모니에서 자유시간, 제네바로 출발, 칼뱅의 도시와 프랑스 종교개혁의 중심지, 세인트 피에르 대성당 방문, 종교개혁 박물관, 칼뱅의 집, 종교개혁 기념비, 칼뱅의 무덤
- ▶ **11일(월요일 3/17, 9/15): 스위스의 카펠과 취리히, 독일의 콘스탄츠, 초빙글리, 채침레파, 안 후스와 프라히의 히에로니무스(제롬)** 카펠에 있는 초빙글리 기념비, 취리히에 있는 초빙글리 유적지, 리마트강 채침레파 수상시킴 곳, 독일의 콘스탄츠, 콘스탄츠 회의에서 후스와 히에로니무스가 재판받던 교회, 후스와 히에로니무스의 화형터
- ▶ **12일(화요일 3/18, 9/16): 독일의 스파이어와 보름스, 루터와 독일의 종교 개혁** 독일의 스파이어로 이동, "개신교"라는 이름이 처음 시작된 스파이어 기념교회, 보름스,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앞에서 섰던 루터 관련 베드로 대성당, 박물관과 루터의 방, 종교개혁 기념관
- ▶ **13일(수요일 3/19, 9/17): 프랑스의 라임즈와 파리, 프랑스의 개혁과 예언에서 프랑스의 역할** 1290년과 1335년의 기산점이 되는 508년 교황권의 장자 프랭크 왕 클로비스의 침례식이 거행된 라임즈의 노트담 대성당, 프랑스 파리의 혁명 장소들, 샹젤리제 산맥의 길로틴 참수 장소 등 프랑스 혁명 장소, 나폴레옹의 무덤, 여성의 여신 문화의 중심지 노트담 방문, 파리의 심장부를 통과하는 보트여행
- ▶ **14일(목요일 3/20, 9/18): 조식 뷔페와 샤를 드골 공항(CDG)까지 가는 전철** 암스테르담을 여행하기 원하는 분들은 버스를 무료로 이용 가능